



동부한인교회협의회(회장 송재호 목사) 성탄 연합 찬양제가 3일 오후 5시에 남가주주님의교회(최현규 목사)에서 성대히 개최됐다. [관련기사 9면] ©기독일보

플로리다 74개 교회, 동성애 분열로 UMC 탈퇴 승인

미국 플로리다의 74개 교회가 동성애에 대한 교단 내 논쟁으로 인해 연합감리교회(United Methodist Church, UMC)를 탈퇴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UMC 플로리다 연회는 지난 2일 오전 가상 특별 회의에서 74개 회원 교회의 탈퇴 투표를 최종 승인했으며, 결과는 찬성 557표, 반대 36표였다.

회의 중에 일부 대표들은 특정 교회의 탈퇴를 승인하는 데 반대하며, 탈퇴 과정이 올바르게 시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승인된 교회 중 43곳은 2022년에 탈퇴 절차가 교회들에게 불리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플로리다 연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브래드포드 카운티의 스타크에 위치한 제8순회항소법원의 조지 M. 라이트 판사는 "세속적인 법원이 교회 내부 문제나 교리 문제에 개입하지 말아야 하며, 이는 최고 교회 기구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라며 교회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라이트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UMC에 소속되어 있음을 시인한다. 이는 법원이 플로리다의 헌법 하에서는 이 분쟁을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 같다"고 기술했다. 탈퇴 투표가 승인된 후, 톰 벌린 플로리다 연회 감독은 탈퇴 교회들에게 "미국 연합감리교회와 플로리다 연회를 떠나는 여러분 대다수에게 평화로운 여정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벌린 감독은 "여러분은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는 분들이며, 다른 이들과 효과적으로 복음을 나누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라며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당신의 교회와 사역을 통해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께 나아오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또한 그는 UMC에 남아 있는 교회들에게 "우리 앞에 놓인 사역은 사람들을 연합감리교인으로 남아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하여 사람들이 연합감리교인이라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미국 플로리다주레이크랜드에 위치한 연합감리교회(UMC) 플로리다 연회 본부. ©UMC 플로리다 연회

2019년 UMC 총회는 특별 회의에서 교단 탈퇴 절차에 해당하는 장정 2553조를 승인했으며, 이 조항은 올해 말에 만료된다. 4일에 발표된 UM 뉴스의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이후로 약 7400개의 교회가 2553조에 따라 UMC를 탈퇴했다. 이 중에서 플로리다 연회는 192개 교회가 교단을 떠났다. 김유진 기자

남가주 소식

2면-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임직식, 샌퍼난도밸리 한인교회 교협 장학금 수여, 남가주 성탄 맞이 행사, 뮤지컬 STONE 공연

3면-ANC온누리교회 임직예배, 은혜로교회 창립 20주년 음악회, 오렌지타운티 한인교회 경찰서 방문

4면-미주장신 코칭 석사과정 디렉터 인터뷰

6면-기쁜우리교회 대강절 설교 무엇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인가?

9면-동부한인교회연합 성탄 찬양제

19면-남가주 한인군목 연말회의 및 송년모임 12/11 강남회관

당일송금 당일지급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송금·환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법 ■뱅크링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전문가로 인한 스토리에서 자유로워지는 경연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2023년 **태양광, 솔라!!**
 2023년 IRA법 혜택 / 30% Tax Credit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미국시장 1위 패널 사용 (25년 워런티)
 ◎설치비 없고, Zero Down (1년 뒤 부터 Payment)
 ◎전기료 70-80%절감 (전기차 사용도 무료)
BTS SOLAR DESIGN 213.500.8000

Proverbs318Law.com

레몬법 전문

Proverbs 31:8 Law **잠언 로펌**

- ▶ 한인사회 한인들의 권리를 최선을 다해 변호해 드립니다.
- ▶ 워런티(Warranty) 보증기간이 남은 새차, 리스차, 중고차
- ▶ 반복적인 문제로 새차교환 현금보상해 드립니다.
- ▶ 자동차 딜러샵 최고 1~2회 이상 수리한 사실

변호사 비용은 100%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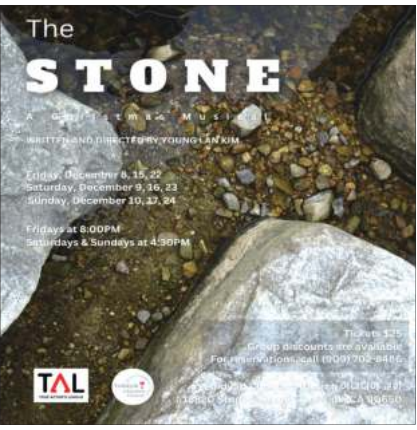
(자동차 생산업체에서 변호사비용 전액 부담)

새차 리스차 중고차 팩토리(Factory) 워런티를 갖고있는 차

브레이크, 변속기, 엔진, 에어컨, 깨진 유리창, 파손된 후방 카메라, 오일 누수, 냄새, 소리, 타이어, 대시보드(Dashboard) 화면 등
1회 이상 수리한 사실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David Lee 변호사 무료 상담 (213)210-3651
 6940 Beach Blvd, Suite D-606, Buena Park, CA 90621 Dlee@proverbs318law.com

뮤지컬 STONE 공연



뮤지컬 'The Stone'이 오는 12/8(금)~12/24(주일)까지 매주 금, 토, 주일 3주간, 놀워에 있는 어디디아 교회(ye-didyahcc.org, 양영준 목사, 주소: 13820 Studebaker Rd. Norwalk)에서 펼쳐진다. 뮤지컬 'The Stone'은 여호수아 4장 8절을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진 Theater TAL(감독 김영란)의 새로운 창작극이다. 주최측은, "문화와 언어가 다른 이 땅에서 이민자로 살며 겪는 아픔들, 세대간 소통의 어려움을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크리스마스가 되길 바라며 이 공연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영어/한국어로 진행되어 자녀들 및 타언어권 관객도 함께 즐길 수 있다. 공연 시간은 12월 8일, 15일, 22일(금)은 오후 8시, 9일, 10일, 16일, 17일, 23일, 24일(토/주일)은 오후 4시30분이다. 공연 예약은 909.702.8486으로 하면 된다.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감격스러운 임직식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담임 지동근 목사)가 창립 6주년 감사예배를 드리고 1명의 장로와 2명의 권사를 각각 임직했다.

이날 지동근 목사는 아름다운교회에 부임한지 2년만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첫 임직자들이 세위집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힘든 시간들 잘 이겨내고 귀한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세위집에 너무 감격스럽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며 "귀한 일꾼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장로로 임직을 받은 이태엽 장로는 "직분을 감당하기에 한 없이 부족한 자이지만 주께 쓰시겠다는 말씀 앞에 순종했다"며 "부족한 자이기에 주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겸손하게 직분을 감당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감사예배는 장한민 목사(예정대신 미주노회 회계)의 인도로 김재영 목사(베이커스필드 교역자협의회회장)의 기도 후에 권오달 목사(예정대신 미주노회 부노회장)가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영광'(출 33장 15-23절)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권 목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음을 기억하라"면서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자리로 부르셨음에 감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지동근 목사)가 창립 6주년 감사예배를 드리고 1명의 장로와 2명의 권사를 각각 임직했다.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사하며 믿음으로 사는 직분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임직식에서 지동근 목사의 인도로 임직자 서약과 안수기도, 공포의 순으로 이태엽 장로와 이정민, 안영미 권사가 각각 임직했다. 백한나 사모의 특별하프 연주 후에 안상철 장로와 오정란 권사가 축가를 불렀으며 이인규 목사(미주기독교일보 대표)가 축사하고

강기운 목사(남가주 선린교회 담임)가 권면을 전했다. 이태엽 장로의 광고 후에 서달준 목사(베이커스필드 사랑의교회 은퇴목사)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쳤다. 김민선 기자

남가주, 성탄 맞이 행사 한가득

▶ 나성영락교회(박은성 목사)는 12/16(토) 오후 5시 본당에서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성탄 뮤지컬 'THE YN CHRISTMAS EXPRESS'를 공연한다.

▶ 엘바인 온누리교회(이재훈 목사)가 주최하는 이웃 초청 디너 콘서트 'Wonderful Christmas: Irvine's Got Talent'가 12/16(토) 오후 5시 비전홀에서 열린다. 초청대상자 신청/봉사자 모집/선물도네이션은 로비 안내데스크나 구충림 형제 (949-351-0590)문의하면 된다.

▶ 웨스트힐장로교회(오명찬 목사)는 12/17일(주일) 오후 4시에 성탄축하행사를 한다. 행사 후 저녁 식사도 제공된다.

▶ 12/8(금) 오후 7시 30분에 메시아 솔리스트앙상블(김라니 이사장, 이사효 단장)의 제 7회 정기공연이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린다. 메시아솔리스트 앙상블은 30여명의 전문 성악가들이 모여, 2020년부터 매해 부활절과 성탄절에 메시아전곡을 영어로 공연해 오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관악, 현악, 챔발로, 팀파니가 포함된 20여 명의 챔버 오케스트라가 제갈소망 지휘자와 김주영 반주자와 함께 공연한다. 티켓은 무료이며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연주회에 관한 더 자세한 문의는 이사효 단장(714- 657-6571)에게 하면 된다.

샌퍼난도밸리한인교회 교협, 장학금 수여로 사랑 전해



샌퍼난도밸리한인교회 교협 성탄축하 연합찬양예배가 3일(주일) 오후 5시 만남교회에서 개최됐다.

샌퍼난도밸리한인교회 교역자협회(회장 변은광 목사, 이하 SFV 교협)의 성탄축하 연합찬양예배가 3일(주일) 오후 5시 만남교



샌퍼난도밸리한인교회 교역자협회의 성탄축하 연합찬양예배에서 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됐다.

회(담임 이정현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날 예배는 만남의 교회 찬양단의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돼 교협 서기 하모세 목사(고백하는 교회)의 기도, 밸리주하나교회 이태훈 목사의 성경봉독, 교협 회장 변은광 목사(밸리생명의교회)의 설교, 교협 회계 서오석 목사(나성평화교회)의 헌금기도와 목사회 부부 일동의 성탄 찬양, 교협 총무 최주철 목사(은혜가 샘솟는교회)의 광고, 밸리 은퇴목사회 회장 문광현 목사의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성탄축하 찬양예배에서는 독창과 심어롱(이경호 목사 부부), 바이올린 솔로(Soo Choi,

Piano: Reerei Park), 찬양(신바나바 목사 외), 밸리생명의 교회 찬양단의 찬양 등이 무대가 펼쳐졌다.

이어진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총 11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수여됐다. 협회 측은 장학금 기금 조성을 위해 협찬한 밸리교협 임직원 일동, 은혜와평강 교회, 빌래생명의 교회, 만남의교회, 서흥석 치과, Simi Ob-Gyn, 밸리코리아뉴스, 밸리매거진 등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SFV 교협은 오는 12월 12일(화) 오전 10시 30분 밸리생명교회(담임 변은광 목사)에서 총회를 개최한다. 김민선 기자

이용태 내과

한인사회의 봉사자로서 터를 닦아온
Dr. 이용태의 외길 인생 봉사하는 마음으로
더욱 성심껏 진료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오셨네
Merry Christmas

**종합검사
전문**

**MEDICARE
PPO**
각종 일반 보험으로
치료합니다

**하지정맥류
실질을 치료전문**

**미국 위장내과 간 전문의
미국 내과 전문의**

원장 **이용태** 박사
Yong T. Lee M.D.



한국종합의료원
YELLOW CROSS MEDICAL CLINIC, INC.

Tel. (323)731-0681 903 Crenshaw Blvd. #302., Los Angeles, CA 90019 leeyongtae@yahoo.com

ANC온누리교회 임직예배, 임직자 78명 삶 주께 맡겨



ANC온누리교회는 12월 3일 오후 3시 본당에서 임직감사예배를 드리고 78명의 새로운 직분자를 세웠다. ©기독일보



ANC온누리교회 임직감사예배 ©기독일보

ANC 온누리교회(김태형 목사)는 12월 3일(주일) 오후 3시에 본당에서 임직감사예배를 드리고 총 78명을 임직했다.

예배는 예배의 부름, 찬송, 김희성 당회 서기장로의 기도, 김태형 목사의 설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사 6:1~9), 김종욱 피택 장로, 강지연 피택 안수집사의 임직자 간증, 정병화 행정목사의 경과보고, 임직자 서약, 임직패 증정 및 안수기도, 임직선포, ANC 남성 중창팀의 축하 '평화의 기

도', 최태석 목사(CRC 교단 한인사역 디렉터), Michael Lee 목사(ANCC 담임), 윤창률 목사(인랜드 ANC 담임), 오펜리 신임장로의 임직자 인사, 광고, 찬송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김태형 목사의 축도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임직감사예배에서 김종렬, 김종욱, 김학주 등 총 10명이 시무장로로 임직 받았고, 시무권사에는 강영순, 권진희, 김선경 등 총 14명, 협동장로 김광순, 협동권사 3명

원제니퍼, 이진선, 한혜영, 명예장로 김기완, 김영기 김윤기 등 총 7명, 명예권사 강영준, 김옥희, 김은순 등 총 6명, 시무안수집사에는 곽준, 김규만, 김덕천, 강지연, 김수련, 김에벌린 등 총 27명이 임직을 받았다.

박선희 피택권사는 "나에게 너무 어울리지 않는 직분을 주셨기에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이었다. 감사보다는 두려움으로 임직 교육을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려움이 감사로 변했다. 부족하고 아무 것도

내세울 것 없음에도 불러 주심에 감사의 눈물이 흐르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란 찬양이 감사함으로 다가왔다.

주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지만 주님께 맡기고 이끄시는대로 신뢰하며 나아가겠다"고 간증을 나눴다. 한편, ANC 온누리교회는 12/15(금) 오후 7시 45분에 키즈윙크 크리스마스 뮤지컬 'Straight Outta Bethlehem' 공연을 한다.

김동욱 기자

은혜로교회, 창립 20주년 음악회



은혜로교회 창립 20주년 음악회 ©기독일보

은혜로교회(김경환 목사)가 지난 2일 교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음악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날 음악회는 하나님께서 지난 20년간 은혜로교회에 베푸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수준 높은 공연으로 진행됐다.

양재훈 장로의 개회 기도도 시작된 이날 음악회는 여성중창팀이 '나를 통하여, 주 믿으라'를, 남성 중창팀이 '주 날 인도하시네'를 연주했다. 이어 합창단은 '길을 만드시는분',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의기도', 'KYRIE(주여 자비

를 베푸소서)', 'Gloria(영광)', '기도(Pregiera)', '하나님께 찬송드리세(Sing unto God)', '주의 모든 일에 감사드리세', '축복'을 연주해 청중들에게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어 청중들의 우뢰와 같은 박수와 앵콜 요청에 '승전가', '거룩한 성'을 연주해 음악회의 대미를 장식했다. 또,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로 구성된 3중주 앙상블팀은 '하나님의 은혜'를 연주해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감동을 선사했다. 모든 순서는 김경환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김민선 기자

웨스트민스터 경찰서 방문 및 식사 대접



오렌지카운티 한인교회(남성수 목사)가 진행한 사랑의 나눔 캠페인에 남성수 목사(좌측 세번째), 심현석 목사, 김창군 목사, 정재훈 장로, 정정숙 권사, 길기영 장로, 장동균 권사(봉사위원장)와 교회 봉사팀들 그리고 경찰국 관계자들과 함께 했다.

웨스트민스터에 위치한 오렌지카운티 한인교회(목사 남성수)는 지난 12월 1일(금) 웨스트민스터 경찰국에 방문하여 경관들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했다.

연말을 맞아 '사랑의 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교인들이 직접 만든 다양한 한식과 BBQ가 경찰관들에게 제공되었고 남성수 목사(좌측 세번째), 심현석

목사, 김창군 목사, 정재훈 장로, 정정숙 권사, 길기영 장로, 장동균 권사(봉사위원장)와 교회 봉사팀들과 경찰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오렌지카운티 한인교회는 예배의 눈물과 감격이 있는 교회, 예수의 제자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소그룹의 나눔과 섬김이 있는 교회, 2세를 책임지는 교회를 비전으로 삼고 있다. 김민선 기자

크렌셔장로교회

장로 은퇴식 및 안수집사 임직식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섬기는 교회와 가정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크렌셔장로교회에서 아래와 같이 장로 은퇴식 및 안수집사 임직식을 거행하려 하오니 부디 참석하셔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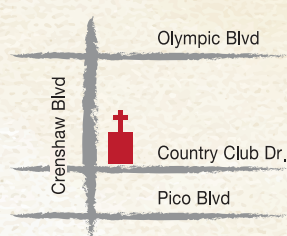
장로 은퇴 : 조영철 장로
안수집사 임직 : 김유형 집사, 최성원 집사

- 일시 : 2023년 12월 10일(주일) 오전10:30
- 장소 :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 LA, CA 90019 T.(213)407-1600



한현종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크렌셔장로교회
CRENSHAW PRESBYTERIAN CHURCH

“코칭으로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회복을 꿈꾼다”

미주장신 코칭 석사과정 디렉터 피터 정 코치 인터뷰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크리스천 코칭을 양성하는 전문 코칭석사(M.A. in Professional Coaching) 과정이 내년 1월 말부터 시작된다. 미주장신대가 후원하고 글로벌 코칭리더십협회(GCLA) 국제대표인 피터 정 코치(미주장신대 전문 코칭 석사과정 디렉터)가 이끄는 이 과정은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파급력 있는 크리스천 문화를 창출해서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선교지를 이끌고 있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새로운 리더십으로 무장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피터 정 교수는 “기독교가 약화되고 있는 시대에 다른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리더십이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코칭의 문화를 통해 상처 있는 자들을 포용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회복까지 가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했다. 피터 정 코치를 만났다.

▶ 크리스천 코칭을 소개한다면

미주장신대에 크리스천 코칭 과정이 있고, 한국에 2-3곳, 미국에 2-3곳, 캐나다에 1곳 정도 코칭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미주장신대가 선두주자이다. 지금 계획은 미주장신대를 크리스천 코칭의 성지로 만드는 것이다. 교회에서는 아직 코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한국의 큰 교회 몇 곳들이 문을 열었지만 아직까지 불모지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사회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20-25년 가까이 코칭을 받아들여서 성장하고 있다. 교회가 받아들인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

크리스천 코칭은 격려의 문화라든가 감사의 문화, 은혜의 문화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잘 될 때 교회가 다시 한번 세상의 문화를 아우를 수 있고, 문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한다. 지금 시대는 문화 전쟁에 들어와 있다. 문화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한데 코칭 상담사가 그런 역할을 하

는 것이다.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고, 사회 직장에서 가운데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칭찬하고 지지하는 문화를 가지고 가는 것이다.

▶ 주로 어떤 분들이 수업에 참여하셔오는 분 중에 코칭이 좋아서 들어오는 분들이 첫 번째, 코칭을 통해서 교회에 봉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선교사들이 들어온다. 섬김의 리더십이 있는데, 섬기자고 하면 막상 교회 중직자들이 그 자리까지 내려가지 않는다. 코칭 문화가 가지고 있는 긍정성과 독창성, 기본적인 것은 있지만 가장 깊숙이 있는 것은 섬김의 리더십이라 할 수 있다.

코치가 대화 자체부터 내담자(피코치)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해야 코칭이 이뤄지기 때문에, 코칭에 피코치가 문제에 봉착했을 때 풀어주는 것뿐 아니라 스스로도 감정을 풀어서 빠져나와서 ‘나도 성장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이 코치들의 역할이다. 언뜻보면 결과물이 적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코칭을 받아보면 상당하다.

부모들이 교회에 안 다녀도 자녀가 다니는 경우가 있다. 자녀들이 교회에 갔더니 변화되는 것이다. 자녀들의 생각과 행동이 바뀌는 부분을 부모들이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부모가 가봤더니 교회가 ‘이런 곳이었어?’ 그곳에 격려의 문화가 넘치고 사람들이 하는 대화법이라든가 보이는 행동들이 세상이서 볼 수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을 때 전도될 수 있다. 평신도들이 가족을 대할 때 이뤄지는 복음적인 삶이 자연스럽게 미셔널 처치가 되는 것이다.

교회로 보았을 때 지금까지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라는 부분이 신앙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많은 피코치들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피터 정 코치(미주장신대 전문코칭 석사과정 디렉터)와 졸업생 최성연(좌)

것을 코칭 수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삶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증거한다. 그리고 ‘섬김의 자리에 가야합니다’라고 생각이 바뀐다. 그리고 본인의 자세와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복음의 문화로 들어오는 것이다. 코칭을 하면 사람이 긍정적으로 변한다. 그리고 긍정의 빛이 흘러나오게 되어있다.

▶ 어떤 교육이 이뤄지는가

수업에서 대화하는 방법은 경청과 질문과 피드백이다. 경청이 단 순하게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내는 공부를 한다. 감정보다 깊이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정체성이다. 가치관과 정체성을 모르면 삶이나 행위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가치관과 정체성마저 터치를 한다. 그런데 그보다 한 단계 더 내려가서 그분의 세계관까지 터치를 한다. 세계관이 변화되어 복음이 들어가고 전도가 되기 때문이다.

1년에 200명씩 훈련하고 있다. 선교사들이 훈련받으면서 중간에 이야기를 나누는데, 은퇴할 때가 되었는데 막상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선교지는 문화가 다르니까 더 힘든 부분이 있긴 하지만 후회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은퇴할 때 즈음에 후

임 요청을 하면 평소에는 믿음이 좋아서 당연히 ‘예스’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 밥 먹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 한다. 그때 가서 아는 것이다. 중간에는 이들에게 밥 먹고 웃도 사주고 하면서 걸음으로는 부흥한 것 같은데 막상 그만두려 하니 교회에 막상 믿음의 사람들이 별로 없음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럴 때 선교사들에게 코칭이 필요하다. 현지인들이 자기 세계관에 갇힌 것이다. 이분들의 문화와 세계관을 뛰어넘어서 예수의 문화로 들어오게 해야 하는 것이다. 코칭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는 어떤 문화에 있는지, 예수님은 어떤 문화에 있는지 보고 바른 길로 가야 하는 것이다. 이 코스를 통해서 선교지를 변화시키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가정에서 제대로 된 남편, 그리고 아내 역할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다. 자녀들이 그렇다. 중 2병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들이 정체성이 바뀌는 시기이다. 그런데 부모들이 그 시기에 적응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적응을 못한다는 것은 경청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자녀들이 변했다는 것을 눈치채고 아이들의 행동과 말투에서 ‘우리 애가 사춘기를 겪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럴 때는 부모가 어떻게 해야 하나. 부모의 인내력이 필요하다. 아이 방에 ‘뚝뚝’했는데, 애가 ‘공부하고 있었어’, 그러면 ‘너가

무슨 공부를 해? 다 들었는데’ 보통 엄마들이 그런다. 그런데 엄마가 ‘우리 애들이 벌써 컸네, 벌써 너만의 세계가 있구나. 나중에 뚝뚝하고 들어갈게’ 이렇게 하면서 엄마들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면에서 보면 엄마가 아들의 문화를 읽을수 있는 경청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코칭을 하다 보면 엄마가 바뀐다. 자녀와 남편을 대할 때도 전혀 달라지게 된다. 이런 질문을 한다. 하나님께서 아내로 불렸을 때, 아내에게 준 역할을 다시 깨닫게 하는 것이다. 피코치가 남편 흠을 보려고 상담왔는데 코치가 저런 질문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와라면 이런 것을 원하지 않을까?’라는 것이다. 코칭이 파워풀하고 상황에 따른 질문을 던질 때 생각이 확 바뀌는 것이다. 첫 번째가 인식의 변화이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행동의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집사님께 ‘코칭을 통해서 변화된 게 있습니까?’라고 물으면 ‘코칭 받고 나서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이처럼 코칭은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하나님 주신 능력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왜 안 쓰고 있는지, 가정이나 직장, 사회를 위해서 쓰자’는 것이다. 그 역할에 불을 붙여주는 촉매제 역할을 저희가 하는 것이다.

▶ 어떤 커리큘럼이 있는가

2년 동안 36학점이면 졸업 학점이 된다. 12과목이 있고, 크리스천 영성과 결합된 과목들도 있다. 코칭 스킬, 코칭 모델, 코칭 프랙티컬 수업이 있고, 졸업 후에 프로 코칭으로 뛸 수 있는 기회가 많다.


각 지역에 코칭 사무실, 코칭 연구소를 세우면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있다. 자격증을 주는 미국의 단체가 있다. 그 단체와 협력해서 프로 자격증을 따고 나갈 수 있도록 제공해 주고 있다. 온오프라인으로 대면 수업, 실시간 수업, 영상 수업이 있고, 해외 선교사들을 위해서 줌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호에서 계속)

아버지 밤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교문 :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보험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보험이 필요할 때와 정직한 Agent를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싼 가격에 현혹되어 잘 못된 결정을 내리시는 실수는 범하지 마시고
 올바른 **Agent**와 **Insurance**를 찾으십시오!
 저희는 최고의 **파머스 보험**과 Service 그리고 정직으로
 보답해 드립니다!



기쁘다 구주오셨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더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이사야 30:18)



Kenneth Lee Lic. #0809178
213-368-2950
 3455 Wilshire Blvd. #465, LA, CA 90010

◎ 센터메디컬그룹

최우수 등급
메디컬그룹

99세까지 88하게 센터메디컬그룹과 함께!!

가주 한인들을 위한 차세대 메디컬 서비스의 시작

시니어만을 전문으로 운영되는
의료 서비스는 센터메디컬그룹이 유일합니다

1 시니어 전문 의료 네트워크

2,000명이 넘는 우수한 실력의
의사와 다양한 의료진!

2 남가주 최다 입원 가능 대형 병원

80여 곳이 넘는 병원들에서
편하게 수술 및 입원 치료!

3 초고속 당일 병원 허가서

미국에서 가장 빠른 리퍼럴
시스템과 승인절차!

4 무료 병원 라이드 서비스

한국인 기사 & 그룹 자체 차량으로
무료 셔틀 서비스 제공!

문의



714-980-3532



cipa@popmso.com

◎ 센터메디컬그룹

QR코드를 찍어주세요!
www.centeripa.com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무엇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인가?”

12월에 들어서면서 각 교회들은 본격적인 성탄절 준비로 분주하다. 12월 첫째 주 첫 예배, 대강절 첫 주일 예배에서 기쁜우리교회의 김경진 목사는 렘 33장 14~16절을 본문으로, “절망 가운데 소망”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가 무엇이며,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진정으로 품어야 할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했다.

“대강절 시즌이 돌아왔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즌이다. 영어로 대강절을 Advent라고 부른다. ‘도착’과 ‘오다’를 의미하는 라틴어 ‘에드벤투스(Adventus)’에서 파생된 말이다. 로마의 황제가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개선할 때 그 행렬의 맨 앞에 서서, 그의 오심을 알리는 사람들이 에드벤투스였다. 성탄까지 4번의 촛불을 켜게 되는데, 25일 날 성탄절 예배를 드릴 때 그리스도의 촛불을 켜게 될 것이다. 5번째 초, 그리스도의 촛불을 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소망과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에게 궁극적 소망이란 주님께 다시 오셔서 모든 세계를 되돌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이다. 그리스도인은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에 죽음이라는 절대적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빛난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크신 은혜로 이루어지는 온 우주를 향한 새 창조를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어느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는다”

그는 예레미야가 바로 그런 소망을 지닌 자라며, “그는 일반 백성뿐 아니라 일가친척에게조차 버림을 받은 자였다. 그도 인간이었기에 깊은 모멸과 오욕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와 말씀으로 말미암아 종 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렘 20:8)라고 탄식했고 자기 탄생을 저주하고(렘 20:14~15),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한탄했다(렘 20:18). 뿐만 아니라 그는 눈물의 선지자로 유명하다. 풍전등화 같이 위협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눈물지



대강절 첫 주일 예배에서 김경진 목사(기쁜우리교회)는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가 무엇이며,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진정으로 품어야 할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했다. ©Youtube screen shot

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문의 말씀 렘 33:14~16절은,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다는 이유로 시드기야 왕에 의해 감옥에 투옥된 가운데, 하나님께 받았던 예언의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기 전 그가 받았던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말씀을 하신다. 어두운 감옥 안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자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15절). 시드기야 왕은 다윗의 후손이며, 시드기야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예언이 자기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 잘못 해석한다. 그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하나님 앞에 계약을 맺고 유대인 노예들을 해방해 주고 개혁한다. 그 가운데 놀라운 것은, 애굽이 유다에 지원군을 보내주고, 바벨론이 겁을 먹고 도망

치게 된다. 그러자 시드기야는 패배를 부른다. 개혁을 단행하고, 신전을 파괴했어야 하는데, 시드기야 왕은 다시 자기 본성으로 돌아와 풀어 주었던 노예들을 다시 잡아들인다. 그러자 바벨론이 유다를 재공격한다. 결국 예루살렘은 완벽하게 포위되고, 시드기야는 포로로 끌려간다.”

그는 이어서, 그리스 점령 하에 독립전쟁을 이끈 유다 마카비, 로마 점령기에 등장한 드다와 유다, 시몬 등, 그들 누구도 이스라엘의 진정한 소망이 되지 못했다고, “인간에게 소망을 찾을 수 없다. 어떤 인간의 왕도, 어떤 정부의 훌륭한 사람이라도,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했다.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가는 것

“폴 에이징거 Paul Azinger라는 유명한 골퍼가 있다. 33세의 젊은 나이에 PGA 투어에서 10개 상을 거머쥐었고 챔피언십에서 1등을 했다. 커리어에서 최고를 달리고 있는데 슬픈 소식을 접하게 된다. 자기가 림프종에 걸렸다는 소식이었다. 곧 죽게 된다는 생각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다. 자기가 성취했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에게 딱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정말 살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가 같이 성경공부를 하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 ‘징거, 우리는 살아 있는 세계에서 죽어 있는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야. 믿는 사람은,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가는 거야.’ 그의 말에, 에이징거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그의 온전한 소망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님이 재림하실 때를 위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굶어졌던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왜 굶어졌을까? 내 소망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다. 바로 서야 하는데 이 세상에 떨어져 있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왔다가 지나갈 것들을 계속 허리를 구부리고 굶다 보니 하나

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두기 때문이다. 나의 것을 충족하기 위해 내가 바라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나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떨어져 있는 동전을 주으러 다니다 보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소망이 없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회복하실 것이다. 새 하늘과 새 창조를 만드실 것이다.”

“구부러진 모습이 여전히 내 안에도 있다. ‘하나님 제가 아직 이 모습 밖에 안됩니까?’라고 괴로워하며, 주님께 오시면 내 안에 어떤 어두움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나를 만드는 그 날이 오겠죠. 그렇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한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보며,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기도

그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보복의 악순환을 보며, “주님의 오심을 향한 가슴이 터질 듯한 갈망”을 느꼈다고 전했다.

“피리내 나는 전쟁, 인종차별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들려온다. 미움과 보복의 피를 흘리는 악순환,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옳지 않다’고 하신다. 그들의 외침과 눈물을 보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로 바꿔달라는 열망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기도가 나왔다. 곳곳에 슬픔과 눈물과 억울함이 가득한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옳지 않다고 하신다.”

“내가 준비가 안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둠, 눈물, 고통과 아픔, 질병을 없애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모든 굶어진 것을 다 퍼주십시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굶어졌던 하나님과 관계를 펴게 하시고, 이웃들과, 성도들과, 가족들과 구부러진 관계를 펴게 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준비하는 삶이 아닐까. 그런 삶으로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주디 한 기자

“목회자들도 소그룹 형성해 삶 나누면 어떨까”

목회자 10명 중 6명은 자신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정기적 소그룹 모임을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데이터연구소(이하 목데연)는 목회자 총 536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달 20일부터 12월 3일까지 ‘삶을 솔직히 나눌 수 있는 정기적 소그룹 유무’를 조사해 4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있다’ 39%, ‘없다’ 61%였다.

이에 대해 목데연은 “목회자들도 목회자 그룹 간 소그룹 형성을 통해 삶을 나누고 그 모임 속에서 서로 간 위로와 은혜가 경험되는 시간을 모색해보는 건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한편, 일반 성도들 사이에서는 소그룹 모임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거치며 교회 내 소그룹이 신앙 유지와 성장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얼마 전 지구촌교회(담임 최성은 목사)와 한국소그룹목회연구원이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소그룹 참여 개신교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속 교회의 소그룹 운영 현황에서 77%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소그룹 활동자 대다수(90%)는 소그룹 모임에서 감동과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감동과 은혜를 느낀 때로는 ‘소그룹 안에서 삶을 나누며 교제할 때’가 64%로 가장 높았고, ‘어려운 일을 당한 소그룹 식구를 위해 기도하고 도와줄 때’(47%), ‘말씀 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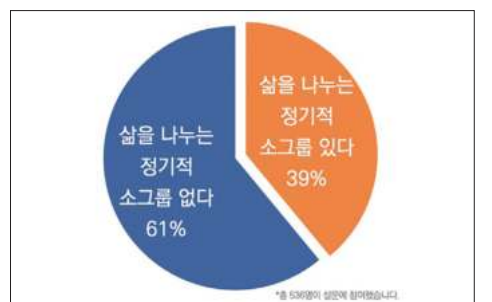
때/말씀 나눌 때’(46%) 등의 순이었다.

소그룹 내에서 자신의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지 여부에는 10명 중 7명(70%)이 ‘그렇다’고 답했다.

소그룹 만족도는 ‘만족’ 89%(약간 47%+매우 42%), ‘불만족’ 7%(약간 6%+매우 1%)로 대다수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데연은 “소그룹은 개인화가 극단적으로 치닫는 이 시대에 시대적 대안이면서 본래 공동체를 지향하는 교회가 교회다움을 내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

특히 “성장하는 교회일수록 소그룹 활동 내용, 모임 빈도, 교제 제공, 리더 헌신도, 삶의 나눔 등 모든 영역에서 소그룹 지표가 뛰어나다”며 “소그룹이 잘 안되는 교회, 특히



“목사님의 삶을 솔직히 나눌 수 있는 정기적으로 모이는 이러한 소그룹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목회자들의 답변 비율. ©목회데이터연구소

소형교회에서 소그룹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기쁘다 구우셨네!

이사의 명가(名家) 거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싸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저가 차량 운송
-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문의 1-877-580-2424 서울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홈쇼핑월드 기절초풍 세일!

청정 남해 HSW와 함께하는 경상남도 특산물 기절초풍 세일

세일 기간 | 2023년 12.6(수)-12.12(화)

건강식품, 생활가전, 주방·미용·위생용품 한국산 먹거리 등 제품을 **최고의 가격**으로 드리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경상남도 특산물 기절초풍 폭탄 세일!!

창원 단감말랭이
450g
~~\$1.49~~
\$1.00



오병이어 구수한 즉석누룽지
60g
~~\$2.99~~
\$1.00



자연향기 명란김
12봉
~~\$9.99~~
\$4.99



초림단지 콩국
90g
~~\$9.99~~
\$4.99



지리산 떡 방앗간 앙꼬절편
400g
~~\$9.99~~
\$6.99



지리산 떡 방앗간 호박찰떡
400g
~~\$9.99~~
\$6.99



지리산 떡 방앗간 팔랑금떡
400g
~~\$9.99~~
\$6.99



지리산 떡 방앗간 앙꼬절편
400g
~~\$9.99~~
\$6.99



특선 쥐포
7마리
~~\$16.99~~
\$8.99



알맹게
250g
~~\$19.99~~
\$9.99



바다 장어
400g, 2-4마리
~~\$29.99~~
\$12.99



알갈리 죽염
280g
~~\$29.99~~
\$19.99



다용도 죽염
1kg
~~\$39.99~~
\$29.99



연말선물 신나는 기절초풍 세일!!

Immune-11 면역력 향상제품
60캡슐
~~\$49.00~~
\$10.00 *1인 5병 한정



종근당 일품 6년근 홍삼
(30포) 1개월분
~~\$89.00~~
\$25.00



소백코리아 홍삼절편
10봉
~~\$54.99~~
\$24.99 *1인 3박스 한정



동원 녹용홍삼
1개월분
~~\$99.00~~
~~\$89.00~~
\$25.00



몽크로스 헤어 드라이기
~~\$259.00~~
~~\$129.00~~
\$99.00



홈쇼핑월드 HOME SHOPPING WORLD
hswUS.com
youtube.com/tvkoa

LA 올림픽지점 (213)380.3330/3307
3071 W. Olympic Blvd, LA, CA 90006
올림픽 + 아드모어 (구 리운성 자동차 자리)
자동 주문 전화 1-855-818-0050

OC 부에나파크지점 (714)522.2494/2496
5300 Beach Blvd #118 Buena Park, CA 90621
비치 + 멜번 BANK OF HOPE 몰
자동 주문 전화 1-855-818-0050

*광고내용 중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본 상품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각 매장 상황에 따라 상품의 판매 수량과 세일 가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조기 품절될 수 있습니다. *There may be a typo in the content of the advertisement, and the image of this product may be different from the actual one. *Depending on the situation of each store, the sales volume and sale price of the product may be changed and restricted.



나성영락교회

YOUNG NAK CHURCH OF L.A.

기쁘다 구주 오셨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이사야 30:18)

YNC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YOUNG NAK CHURCH OF L.A. Tel. 323-277-1400 / Fax. 323-227-0718



담임목사 박은성
Rev. Dr. Eunsung Park

주 일 예 배 1부 7:30AM | 본당 및 온라인
2부 9AM
3부 11AM

영 어 예 배 9:30, 11AM (주일) | 새교육관 채플

청 년 예 배 1:30PM (주일) | 본당

능력의 수요강해 10AM (수) | 본당

새 벽 기 도 회 5:30AM (월-금) | 본당

온교우 토요기도회 6AM (토) | 본당

아 동 교 육 부 11AM (주일) | 교육관

중 고 등 대 학 부 11AM (주일), 7PM (금) | 교육관

주 일 한 국 학 교 1PM (주일) | 교육관

토 요 한 국 학 교 9:30-12:30PM (토) | 새교육관

AWANA (K-6) 2-3:30PM (주일) | 새교육관 GYM

특 수 사 역 부 11AM (주일) | 소망관



LA씨티교회

성도들을 일터선교사로 파송하는 LA씨티교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눅 2:14)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0:50
평신도리더쉽훈련 (수)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30
토요아침예배(렉치오디비나) 오전 9:00

주소 및 전화

741 S.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05
T. (323) 833-9090



썬니킴 담임목사



평화와 희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탄생은 세상을 향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담임목사 구봉주

예배시간 안내

주일1부예배 주 일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주 일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주 일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금요일 오후 7:30
한어대학청년예배 주 일 오후 2:00
EM(영어예배) 주 일 오전 9:30/11:30

주소 및 전화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Email: admin@thanksgivingchurch.com
T. (714) 521-0991 Fax: 714-521-4636
http://thanksgivingchurch.com/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THANKSGIVINGCHURCH

성탄의 주님 향한 찬양으로 하나된 동부한인교회



선한목자교회 ©기독일보

동부한인교회협의회(회장 송재호 목사) 성탄 연합 찬양제가 3일 오후 5시에 남가주주님의교회(최현규 목사)에서 성대히 개최됐다.

1부 예배에서 '그 이름의 비밀'(마태복음 1장 21절)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한 우영화 목사(동부사랑의교회)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다. 놀라운 사실이 있다. 이 십자가의 달여지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은혜 안에서 죄와 상관 없는 자로 살려는 강력한 열망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발동되기 시작한다. 예수는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시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귀한 밤이 되길 바란다"라고 설교했다.

나성서남교회 임보희 전도사(Global Missionary Choir Director)의 사회로 진행된 성가제에서 동부지역 9개 한인교회가 성탄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렸다. 각 팀이 두곡씩 찬양을 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비전을 지닌 글로벌선교교회(김지성 목사)는 '그의 빛 안에 살면', '주님을 찬양하라'를 찬양했고, '예수 믿는 제자가 되어 세상 속으로 찾아가는 교회'를 표어로 삼은 유니온교회(구자민 목사)는 '주의 모든 일에 감사드리며', '예수 거룩한 이름'을 찬양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제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가는 가족 공동체'를 목회의 비전으로 세운 동부사랑의교회(우영화 목사)는 '아기 예수 나셨다! 아멘!', '산 위에 올라가서'를, Global Missionary Choir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제자 삼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를 비전으로 삼은 선한청지기교회(송병주 목사)가 'Gloria', '나의 믿음을 드러냅시다'를 부르며 주님을 찬양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꿈꾸는 선한목자교회(고태형 목사)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복음의 등불되게 하소서'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아름다운교회(고승희 목사)가 '와서 주께 경배해', '내 주는 강한 성이요'를, '제자훈련을 통하여 사도행전적 교회의 참 모습을 회복하여 지역 사회를 섬기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남가주주님의교회(최현규 목사)가 '희망의 빛 예수', '회복의 은혜'를 찬양했다. 특송으로 바리톤 이사호 지휘자가 'The Holy City'를 찬양했다. 이날 모든 순서는 고태형 목사(선한목자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동부교협은 지역교회의 연합과 동역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나 관심을 부탁했다. 동부교협은 교단과 신학배경을 초월해서 교회의 본질을 함께 고민하며 건강한 지역교회를 세우는 모임으로, 함께 동역하고 있다.

토마스 멩 기자



유니온교회 ©기독일보



아름다운교회 찬양팀 ©기독일보



글로벌선교교회 글로리 찬양팀 (지휘 김주혜) ©기독일보



선한청지기교회 찬양팀 ©기독일보



바리톤 이사호 지휘자 ©기독일보



동부사랑의교회 할렐루야 찬양팀(지휘 최왕성 전도사) ©기독일보



남가주주님의교회 찬양팀 ©기독일보

NATURE'S TREASURE Innervis NUTRITION

건강을 선물하세요

부모님 선물로 딱이네~

기억력 개선, 피로 회복, 면역력 강화, 항산화 작용, 혈액순환 개선

이너비스의 약속

- ✓ 믿을 수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현지 제품입니다.
- ✓ cGMP(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인증 시설에서 제조합니다.
- ✓ 제3자 실험실 테스트로 라벨 내용과 제품 성분이 일치하는지 검증합니다.
- ✓ FDA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듭니다.

Produced in FDA Registered Facility

구매 방법

기독샵

전화구매: 213-434-1170
현장구매: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 1 물 없이 씹어먹는 애플 사이드 비네거**
60 츠어블 타블렛 \$13.99
애플 사이드 식초와 유산균 및 여러 종류의 비타민으로 구성되어, 체중 감량, 해독, 콜레스테롤 저하, 소화 불량을 예방, 에너지 증진, 신진대사 촉진 등에 탁월합니다.
- 2 물 없이 씹어먹는 간 회복제**
60 캔디 타블렛 \$16.99
간 건강에 가장 좋은 조항인 밀크씨슬과 강황을 모두 함유하고 있으며, 모링가 및 다양한 비타민들로 구성되어 간 건강, 소화력, 독소 제거, 숙취제거에 도움을 줍니다.
- 3 에너지 & 무드**
60 캡슐 \$9.00
에너지와 건강을 도우주는 다섯 가지 핵심 원료인 마그네슘, 비타민C, 마카, 아슈와간다, 무미라 푸마마로 만들었으며, 신경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 4 목 넘김이 쉬운 비오틴 5,000mg**
120 베지터를 캡슐 \$9.99
탈모 예방과 피부질한 개선 및 손톱을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또한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고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 5 목 넘김이 쉬운 비타민 D3 5,000 IU**
120 베지터를 캡슐 \$8.80
D3 5000 IU 선사인 비타민 햇빛을 보지 않고,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비타민D 결핍을 보충해 줍니다.
- 6 비타민 C500**
180 베지터를 캡슐 \$11.99
당신의 건강과 부티를 위한 필수 영양인 필수영양소 비타민C와 칼슘, 그리고 노화 방지, 피부 개선, 항바이러스 등의 효능을 가진 로즈힙까지 함유된 제품입니다.
- 7 물 없이 씹어먹는 비타민 C 츠어블 500mg**
120 츠어블 타블렛 \$14.75
쉽고 빠르게 비타민C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D와 비타민 B2, B6가 함께 들어있어 육체 피로와 면역력을 개선해 주며, 기미와 주근개 예방에 좋습니다.
- 8 엠에스엠 2,000mg**
150 타블렛 \$10.99
활력있는 생활로 돌아가세요! MSM은 관절 통증을 완화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근육 회복, 피부 노화 방지, 상처 치유 촉진 등에도 도움이 됩니다.
- 9 면역력**
120 타블렛 \$11.99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로즈힙을 사용하여 제조된 강력한 면역력 개선 제품입니다. 신체 면역체계의 다양한 세포 기능을 지원해 줌으로써 면역력을 근본부터 끌어올려 줍니다.
- 10 간 건강 피로 회복제**
120 베지터를 캡슐 \$19.99
한국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함량의 살리마린(밀크씨슬)을 포함하였으며, 검증된 비타민, 마네틴, L-시트룰린, 마늘, 인삼, 허브 등 혈액순환에 좋은 고급 원료를 풍부하게 사용하여,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 11 프리미엄 혈액순환**
150 캡슐 \$19.99
검증된 다양한 비타민, 아연, 니아신, L-아르기닌, L-시트룰린, 마늘, 인삼, 허브 등 혈액순환에 좋은 고급 원료를 풍부하게 사용하여,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 12 타우린 500 플러스**
180 캡슐 \$14.99
신경세포와 신경계를 보호하고 진정시켜 심장, 두뇌 등을 건강하도록 도와줍니다. 비타민 C와 정황하여 항산화 효과도 뛰어납니다. 한 병으로 6개월간 복용할 수 있어 매우 경제적입니다.
- 13 피쉬 오일**
120 소프트렐 \$13.75
높은 품질의 피쉬 오일을 사용하였으며, 다량 함유된 오메가3는 심장과 신장, 눈, 면역의 중요 요소로 사용됩니다. 항염, 눈 및 면역 증진을 도와줍니다. 또한 안전 염증을 완화해 줍니다.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에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어,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김성식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213) 674-7966, (213)245-6616

김기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9:15) 새벽예배 월요일(아) 오전 6시
3부예배(자세히) 오전 11:30 (화-토) - 한강영성예배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일(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민2세를 책임지며, 이민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영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 Eden 코너)
T. (213)386-2233

씨니김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예배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 월-토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323)833-9090

김지훈 담임목사
주일 1부 전통예배 오전 7:30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2부예배 오전 9:00 어와-NAWANA 주일 오후 2:30
주일 3부 말미예배 오전 11:00 토요한국교회 오전 9:30
수요 오전 중보기도회 오전 9:30 영유아부 유치부, 초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323)466-1234 Email: omcoffee1@gmail.com

한천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323) 735-6412 / gmcchurch.com

진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에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박은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323) 227-1400 web@youngnak.com

고광선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교회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에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 10:50 토요새벽 오전 6:00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에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우영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 (토)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909)590-3722 www.eastsarang.org

강지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에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안 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말씀강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서사라 담임목사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리디오 방송설교
수요일에: 저녁 7시 리디오서울 AM 1560 오후 2:0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618-0614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신승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에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리디오 오후 6:30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기고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주일 오후 2:00
새벽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곽부환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안)기도회 오후 8:00
한국교회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수요일(도모임) 오후 8:00
중고등부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30(토)

한마음제자교회
심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이순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366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송재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에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EM성경공부 오후 7:00(금)
중보기도회 오전 10:30 금요일(안)기도회(마침) 오후 8:00
중보기도회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a@hnsa.org

김지성 담임목사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월-금) 05:00AM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일(토) 06:00AM
-3부 11:00AM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 (909)396-4441 www.igkc.org

안정섭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 고등 대학부 오전 11:00
수요성경학교 오후 7:30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예수동행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 (818) 366-0089 / www.ykum.com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9:00 JC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12:30 오전 10:15, 오후 12:40
EM 오전 11:15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사망부 오전 8:45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리 내 길에 빛이입니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2:30 수요일에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시리아 기독교인 대다수 고향 떠나… 지역 미래 위협”



모르 에프렘 시리아 고대 정교회. ©AA 제공

시리아의 기독교인 가족들 대다수가 고향을 떠나면서 이 지역 기독교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흠스의 대주교 자크 무라드(Jacques Mourad)는 가톨릭 자선단체 ‘에이드투더터치인니드’(ACN)와의 인터뷰에서 “시리아에 대한 ‘억압적인 체재’가 극심한 빈곤과 부패와 같은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사들이 월 15~17파운드(약 2만 5천 원~ 2만 8천 원)를 받는 자유낙하 교육 체계도 문제”라며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 수준보다 낮다”고 했다.

ACN은 2011년 내전 발발 이후 최대 50만 명이 시리아를 떠난 것으로 추산 중

이다. 떠난 이들 중 상당수는 청년들이다. 대주교는 “시리아 법에 따라 젊은 기독교인 여성들은 남성이 부족해 무슬림과 결혼해 개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는 자녀들에게 더 나은 삶을 보장하기 위해 시리아를 떠나는 가족들을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들은 이 나라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을 잃었고, 자녀들이 안전하지 않은 나라에 살기를 원치 않는다”고 했다. 또 “이주를 선택하는 젊은이들도 많아, 이 역시 상당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ACN은 흠스 대교구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크리스마스에 어린이와 장애인에게 3천 개 이상의 선물을 전달할 예정이다.

강혜진 기자

나이지리아 여학생, “예수께 감사” 했다가 급우들에 피살



나이지리아에서 종교적 신념을 드러낸 기독교 여학생이 끔찍하게 살해당하고, 이 사태를 비판하며 관련 영상을 공유한 여성이 18개월째 구금된 후 사형 위기에 처했다고 오픈도어선교회가 전했다. 사진은 울고 있는 나이지리아 여성의 모습(위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한국오픈도어

나이지리아에서 소셜미디어 채팅방에 종교적 신념을 드러낸 기독교 여학생이 끔찍하게 살해당하고, 이 사태를 비판하며 관련 영상을 공유한 여성이 18개월째 구금된 후 사형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오픈도어선교회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소코토에 있는 세후 샤가리사법대에 다니는 데보라 사무엘 야쿠부라는 여학생은 지난 2022년 5월 급우들에 의해 살해당했다. 학업 중 한 시험에 합격했던 야쿠부는 학생들의 소셜미디어 ‘왓츠앱’ 채팅방에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게 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올렸다. 이를 본 남학생들은 야쿠부를 기숙사에서 끌고 나와 돌무덤처럼 폭행한 뒤 불에 태워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끔찍한 테러 장면을 촬영했고, 해당 영상과 살인범의 얼굴은 서아프리카 소셜미디어 네트워크에 엄청나게 퍼져나갔다. 야쿠부가 살해된 지 5일 후, 의뢰계 종사자인 로다 자타우는 바우치 주립 1차 의료 종사자들로 구성된 왓츠앱 그룹방에 해당 영상을 공유하며, 야쿠부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표현할 권리가 있음을 옹호했다. 그러자 동료들은 그녀를 신성모독 혐의로 고발했다. 자타우는 즉시 체포됐고, 구금된 후 당국에 의해 신성모독, 폭도 선동, 종교적 신념에 대한 모욕 혐의로 기소됐으며, 남편과 아이들은 강제로 집에서 도망쳐야 했다고 오픈도어는 덧붙였다. 당국은 자타우에게 “공동체의 평화를 교란하려는 의도로 예인자 모하메드(무함마드)를 모독하는 내용의 영상으로, 심각하게 소란을 조장하고 지역사회의 평화를 갈라놓는 원인이 되었고, 많은 상점과 바우치 주의 와지 지방 정부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파괴하도록 이끌었다”는 혐의를 씌웠다.

오픈도어에 의하면, 그는 ‘신성모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법은 1999년에 샤리아 법을 채택한 북부 나이지리아의 12개 주에 존재하며 최대 처벌은 사형이다. 나이지리아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심한 박해와 차별에 직면하는 국가 중 하나로 오픈도어의 ‘2023 월드 와치 리스트’(기독교 박해지수) 6위에 올라 있다. 유럽연합과 유엔은 나이지리아 정부에 신성모독법을 폐지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영국 오픈도어의 캐롤라인 더필드는 “로다 자타우는 평화로운 방식으로 표현의 자유와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를 합법적으로 행사했다. 무분별한 살인을 비난하는 영상을 공유했다는 이유로 기소를 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정작 당일 살해 영상이 공유되는 것에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경호 기자

美 목회 지원 사역 창립자 "팬데믹 이후 목사 압박 최고조"

미국의 목회자 지원 사역 단체 '칼레오 콜렉티브'(Kaleo Collective) 설립자인 앤드류 맥퀴티 목사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목회자에 대한 더 나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텍사스주 어빙 소재 어빙성경교회의 원로 목사인 그는 이번 주 초에 텔러스 신학교 팻캐스트 "더 테이블(The Table)"에 출연했다. 2019년에 담임목사에서 은퇴한 맥퀴티는 이듬해에 터진 팬데믹 사태 동안, 이미 어려웠던 목회 사역이 어떻게 더욱 힘들어졌는지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는 진행자 빌 헨드릭스에게 "팬데믹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우리는 이 나라에서 매달 최대 1500명의 목사를 잃고 있었다. 그들의 교회는 문이 닫혔다"라며 "이들 대부분은 주로 외곽 지역에 위치한 목사들이었고, 도시 지역과 달리 동료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들이 봉쇄되자 교회에는 사람이 오지 않았다. 따라서 헌금도 들어오지 않았다"며 "그들은 격려도 받지 못한 채 그저 시들고 있었다"고 했다. 맥퀴티는 자신이 팬데믹이 시작되기 1년 전에 은퇴한 것에 대해 "정말 죄책감을 느꼈다. 이 끔찍한 상황이 칼레오 콜렉티브를 출범시키는 데 영감을 주었다"며 "텔러스에서 30년 동안 목회를 이어나가도록 도와준 동료들에 대한 기억이

목회자 지원 사역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맥퀴티는 자신과 텔러스 포트워스 지역의 목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서로를 지원하고 동료애를 나누었다"며 그러한 공동체를 다른 목회자들에게 제공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맥퀴티는 "그 사역이 내가 하고 싶은 전부다. 사람들이 영혼의 돌봄 문제와 리더십 모범 사례를 다루는 동료 공동체에 함께 모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싶다"며 "그곳에서 관계뿐만 아니라 우정을 지속하는 형제 같은 모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목회자의 역할이 민간 고용주나 군대와 같은 세속적인 지도자의 위치보다 어려운 이유로, 후자는 처벌이나 해고 등의 위협을 통해 사람들을 따르도록 강요할 수 있지만 목회자는 그럴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신 맥퀴티는 목회자를 추구 코치에 비유하며, 두 상황 모두가 "관중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회 지도자가 세속 지도자보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 "정책과 재정적 결정뿐만 아니라, 영적 및 정치적 결정을 내려야 할 가능성이 더 높다"면서 "그 모든 압박이 너무 크다. 오늘날 목회자들은 그들이 훈련과 경험으로 준비한 것보다 너무 많은 것이 요구된다"고 했다. 김유진 기자

美 자유수호연맹 대표 "전 세계에서 검열 심각"



미국 자유수호연맹의 CEO이자 회장인 크리스틴 와고너가 2022년 12월 5일 '303 크리에이티브 LLC 대 엘레니스' 사건의 구두 변론 후 미국 대법원 밖에서 연설하고 있다. © 크리스천포스트

미국 기독교 비영리 법률단체 '자유수호연맹'(Alliance for Defending Freedom)의 CEO 크리스틴 와고너가 혐오 표현을 단속하는 아일랜드 법안에 우려를 표명하며, 서방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와고너는 최근 크리스천포스트(CP)와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적으로 검열로 향하는 추세를 목격하고 있다. (미국도) 권위주의적인 총통에 면역된 것은 아니"라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고, 발언을 침묵시키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표적화"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3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이민자 혐오 폭동이 발생한 이후, 아일랜드 당국은 혐오 표현 방지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폭동은 지난주 한 알제리 이민자가 가톨릭 학교 밖에서 세 명의 어린이와 케어복지사를 흉기로 찌른 후 격화되었다.

그는 "아일랜드에서 벌어진 사건은 참혹한 비극이며, 해당 문제에 대해 정부의 표적화된 조치가 요구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범죄화하는 것은 소름 돋는 일"이라며 "이것이 아일랜드에 미칠 파장에 대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혐오나 폭력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는 발언" 뿐만 아니라, 해당 자료를 소지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된다. 여기에서 혐오란 "보호받는 특성 또는 그 특성 중 하나를 이유로 국가 또는 다른 곳에 있는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증오"로 정의되며, "성적 지향 및 성 특성"도 포함된다. 법안에 따르면, 만일 판사가 아일랜드 시민의 기기에 혐오적인 자료가 있을 가능성을 의심하여 영장을 발

부하면, 해당 시민은 국가 당국에 비밀 번호를 제출해야 하며 거부할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테슬라 최고경영자이자 소셜미디어 기업 '엑스'(X·구 트위터)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는 이번 주 초, 아일랜드의 법안을 비난하며, 이 법안이 휴대폰에 있는 밈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10월, ADF 인터넷서널은 머스크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정부의 언론 탄압에 맞서 연대할 것을 촉구했다. 와고너는 아일랜드 법안이 표현의 자유와 멀어지는 전 세계적 추세인 한 부분이라며, 최근 몇 년간 ADF 인터넷서널이 소송을 제기한 주요 종교 사건들을 나열했다. 그러한 사례 중 하나는 핀란드 국회의원 파이비 라사넨(Päivi Räsänen)과 관련된 증오범죄 사건이다. 라사넨 의원은 2019년 핀란드 루터교회가 성경 구절을 인용해 성소수자(LGBT) '프라이드의 달'을 홍보한 것을 지적하는 트윗을 게시했다. 이후 검찰은 증오범죄 혐의로 그녀를 기소했고, 법적인 공방은 4년간 계속되었다. 검찰은 또한 2004년 라사넨 의원이 "그분이 창조한 남성과 여성: 동성에 관계는 기독교인의 인류 개념에 도전한다"라는 내용의 팸플릿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추가 혐의를 제기했다. 또한 이 팸플릿을 출판한 핀란드 복음주의 루터교 선교 교구의 요한나 포올라(Juhana Pohjola)주교도 함께 기소되었다. 라사넨 의원은 2022년 3월 헬싱키 지방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11월에는 항소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내년 1월까지 핀란드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김유진 기자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일 성경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EM예배 (1부)오전 9:00, EM예배 (2부)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후 7:30, 한여 청년부 주일오후 1:00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평일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블리제움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일 성경예배 오후 7:30, 금요일 성경예배 저녁 7:45, 새벽기도회 오후 5:30 / 토 오전 6:00, 1814 N. Hollywood St., Northridge, CA 91321, (818) 893-8887

OC제물 수요일 성경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7:30, 6501 Western Ave., Buena Park, CA 92611

최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국윤권 담임목사

중현선교회
불러세(Calling), 고르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대(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gyun.kwon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오전 11:00, 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아기레슬) 오전 11:00, 영아부예배(민들레)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Youth 금요모임(금) 오후 7:30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복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3-8755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유종고등부 예배 오전 8:4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EM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 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Redeeming Grace(EM)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형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326-0300, http://rpcsc.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0, EM 1부 예배 9:30/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김정훈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EM2부인예배 오후 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세일을 행하시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 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KM정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김유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www.torrancecgcc.org

주일 1부 오전 7:45, 주일 2부 오전 9:45, 주일 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GRC(EM)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장미인예배 오전 11:30, 한국교회토요일 오전 9:00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 402-2919 / www.cmchome.org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기든구국재단: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여대(화-토)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금요찬양 오후 7:30, 장미인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E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 www.dongshi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후 1: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252-9191 / www.lordlight.org

1부예배(EM) 주일 9:00a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3부예배(유아) 주일 9:30am, 금요찬양예배 8:00pm, (매월 두번째 금), 목요일예배 11:00am, 목요일예배-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00, 1부인예배 오전 11:00, 2부인예배 오후 7:00(수), 3부인예배 오후 9:30(금), 4부인예배 오후 11:00(토), 5부인예배 오후 6:00(화-토)

림학준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 영아예배 오전 9:15, 영아예배 오전 9:15, 주일학교 오전 9:15, 영아예배 오전 9:15, 주일학교 오전 9:15, 영아예배 오전 9:15

김한오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목요일예배 오후 11:15, 목요일예배 오후 1:00, 목요일예배 오후 2:30, 목요일예배 오후 2:30, 목요일예배 오후 2:30

박신용 담임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들 새대를 세우고 목요일에 다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매일 마지막 금요일), 청년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연합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2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일예배 오후 08:00, 금요일예배 오후 08:00, 금요일예배 오후 08: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근삼박교회 세계선교를 이루려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 598-9130 breadhoon@gmail.net

주일예배 오후 1:00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8 S Vermont Ave #214, Harbor City, CA 90710
T. (310) 905-2228 / newchurchdtdla.com

기쁘다 구주오셨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이사야 30:18)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사람을 살리고 세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예배안내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 2부 오후 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방송안내

CGNTV (공중파: KVMD 44.9)
본방송: 화요일(PM10:20), 재방송: 토요일(PM4:30)
KCMUSA (인터넷 방송: www.kcmusa.org)
YOUTUBE (검색어: 기쁜우리교회 김경진 목사)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기쁘다 구주오셨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눅 2:14)

신승훈 담임목사

예배안내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라티노 오후 5:00
GCEM 오후 1:0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2023년으로 창립 24주년을 맞이된 주님의 영광교회는 L.A.다운타운, 그랜드와 워싱턴이 만나는 선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는, 주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교회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모든 구원을 받으려, 말씀과 기도로 성령충만하여 제자되기를 힘쓰며, 2세가 잘되도록, 또한 선교에 전념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동행교회

매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안정섭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수요성경학교 오후 7:30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대학부 오전 11:00

10408 Balboa Blvd, Granda Hills, CA 91344
T. (818)366-0089 / www.vkumc.com



강태광의 기독교 문학 산책

성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강석진 목사의 북한교회사 이야기

김일성 공산정권의 기독교 소멸을 위한 우상화

이북교회는 두 번에 걸친 배교 행위를 저질렀다. 첫째는 1938년 평양서문밖교회에서 신사참배의 배도였고, 두 번째는 1946년에 어용 종교 기관인 '조선기독교보연맹'을 설립하여 이북의 온 교회들이 그 정치적 방침에 따르도록 하여 온 교회들이 공산화에 협조하였다. 이는 공산정권 앞에 굴종한 두 번째 배도였다. 그러나 공산정권이 수립(1948.9.7)된 후에는 점진적으로 교회를 소멸시키기 위한 정책을 강구해 나갔다.

김일성 정권은 기독교의 하나님 보다는 김일성을 신격화하기 위해 북한의 10계명 같은 '10대원칙'을 만들어 오직 김일성과 그 체제에만 굴복하고 숭배하도록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일성은 절대무오의 신적 존재가 되어야 했다. 이는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와 봉건적 사교의 혼합 체제를 수립한 것이다.

김정일은 자신의 권력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 기독교의 잔재와 그 사상과 신앙을 무력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반종교 지침을 내려 전 인민을 세뇌시켰다. - 종교는 계급성을 마비시킨다. 착취 계급과 무착취 계급 사이의 대립을 약화시킴으로 노동자와 농민들의 계급성을 마비시키며, 종교는 아편 같아서 사람들의 의식을 마비시킨다. - 종교는 대오를 마비시킨다. 수령과 인민, 당과 대중을 분리시킨다. 그러므로 전당, 전군, 전인민이 종교와의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 종교는 근로 대중의 고향을 짜내고 인민들의 대가를 수탈하며 사랑을 강조하며 부모 자식과 부부간의 사이를 갈라놓고 성적 문란을 조성시키고, 신도들의 주머니를 털어내어 종교 지도자들의 배를 불린다.

-종교는 혁명과 건설을 말아 먹는다. 제국주의자들이 종교를 이용하여 광범위한 군중의 저항력을 마비시킨다.

- 종교는 제국주의 침략의 앞잡이다. 세계 최초의 미국 침략선 제너럴 셔먼호를 몰고 오는 데 길잡이를 기독교가 하였다.

이외에도 김일성을 절대화하기 위해 제작된 <김일성어록>은 곧 불변의 진리이고 법이고 원칙과 경전이 되어 버렸다. 이뿐만 아니라 전



강석진 목사 '북한교회사' 저자

국에 3만 8천 개 이상의 김일성 동상을 만들어 놓고 자신의 생일을 국경절(4월15일)로 정하고 이를 로마의 태양신 숭배처럼 '태양절'이라고 공포하였다. 이는 기독교의 성탄절을 대신 한 것으로 김일성은 곧 북한 땅에 유일무이한 신이 되었다. 김일성은 평양 광장에 세계에서 가장 큰 황금빛 동상을 만들어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머리를 숙이게 하고 스스로 신이 되었다. 그 장소는 장대현교회가 있었던 '장대제'라는 지명이었으나 공산정권의 혁명적 언어로 개명되어 '만수대'라고 불리게 되었다.

김일성은 1972년 그의 60회 생일을 기념하여 그곳에 20미터 높이의 초대형 동상이 우상물로 세워졌다. 참배자들마다 그 동상에 꽃을 바치고 헌화한 다음 2~3미터 뒤로 물러서서 몇 초 동안 동상을 우러러 보아야 하는 행동 지침도 강요하고 있다. 평양에서 결혼식을 마친 신랑 신부가 꽃바구니를 들고 제일 먼저 찾아가서 그 동상 앞에 절하는 것이 예시화되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영생하는 아버지 수령으로 우상화되었다. 김일성은 살아서도 신이오 죽어서도 신으로 추앙받고 있다. 김일성은 사망한 후에도 그의 시신을 박제로 만들어 그 시신에 절하게 하고 있고 수억 달러를 들여서 '금수산 태양궁전'에 안치해 놓았다.

김정일은 자신의 통치에 신성불가침 같은 존재로 부각하기 위해 자신의 생일 2월 16일을 '광명절'이라고 불리게 하였다. 나아가서 그의 모친 김정숙을 '혁명의 어머니'라며 그녀의 생일도 국경절로 하여 12월 24일로 정해놓았다. 이러한 숭배 체제는 기독교의 성부, 성자, 성모의 숭배와도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은 우상화는 일본의 천황을 신격화한 것을 모방하여 김씨 신정국 시대를 이어가고 있다.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현대 성도들에게 소개하고픈 초대교회 문서 중의 하나가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서신>이다. 이 서신은 <헤르마스의 목자>와 더불어 수신자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문서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두 문서의 공통점은 저자가 명확하지 않았던 반면에 수신자는 명확하다.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는 2세기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된다. 교회 내부의 혼란과 외부의 핍박이 공존하여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에 기록된 문서로 보인다.

초대교회 교부 문헌들은 니케아 이전과 이후의 문헌들의 차이가 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공인된 이후에 소집된 최초의 보편적인 종교회의인 니케아 회의는 교회사에 중요한 분기점이다. 신앙 양식이나 교리는 물론이고 교부들의 문헌에도 니케아 종교회의 이전과 이후에 큰 차이가 있다.

니케아 이전 문서에는 심한 핍박이 언급되고,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가득했고, '전통'과 '일치', '거룩한 삶'과 '순교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하다. 문헌의 문체는 대체로 투박하고, 체계적이지 못하며, 일관성이 없다. 마치 격식이나 치밀한 논리가 필요하지 않은 사적인 서신이 주류를 이룬다. 초대교회가 신학적인 논쟁보다는 '공동체성'에 보다 많은 관심과 현실적 필요, 도덕적 삶을 추구했기 때문이었다.

반면에 니케아 종교회의 이후에 기록된 문서들은 핍박과 갈등이 사라진 상황을 보여준다. 논조나 문체가 비교적 세련되었고 여유가 있다. 문서에 나타난 교회는 성숙된 교회의 모습이다. 교리적으로는 삼위일체론은 이미 확립된 것 같고, 신성과 인성을 인정하는 기독교론도 확립되었고 영성이나 개인의 성숙에 관련된 글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기준으로 살펴보면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는 니케아 종교회의 이전 자료인 것이 분명하다. 내용은 네로의 핍박이 시작되어 대대적인 고통을 교회가 겪는 것을 담고 있다. 고통의 상황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경건하게 사는 가를 잘 보여주는 자료다.

사도 요한의 계시록 후 교회가 급성장하였다. 기독교 세력의 팽창은 로마 황제가 시샘하거나 위협을 느낄만한 상황이었다. 그래

서 교회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네로가 교회를 대대적으로 핍박했다. 이미 알려진 대로 네로의 핍박은 무섭고 잔인했다. 이런 상황을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가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12장으로 구성된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은 2세기 중 후반의 교부 문헌과 거의 흡사하다. 이레네우스나 로마의 히폴리투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 등의 기록들과 내용상 겹치는 부분이 많다. 반면에 다른 교부의 작품을 인용하거나 동시대의 인물들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당시 다른 교부 문헌과 상이한 점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1장에서 4장까지는 기독교 우월성을 소개한다. 저자는 기독교의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교도와 유대교를 비판한다. 이어서 5장과 6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과 기준을 다룬다.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인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지만 다른 도덕적 기준을 갖고 산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다. 요컨대 성도들이 가진 높은 도덕적 기준을 제시한다.

7장에서 9장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해설을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해야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 폭력이 아닌 사랑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냈다. 이 아들은 '이우주의 설계자이며 건축가이신 분'이다. 이런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10장에서 12장은 하나님의 신비를 설명하고 성도들에게 주는

권고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들의 마음에 심으셨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을 것이고, 이웃을 괴롭히고 약자를 짓밟고 재산을 축적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는 변증서이지만 다른 교부들의 변증서 들과는 여러 가지에서 차이가 있다. 먼저 이 편지는 다른 교부들의 작품에 비해 감성에 호소하는 경향이 강하다. 다른 교부들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신앙과 교회를 변증하는 데 반하여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는 감정에 호소하며 감동을 지향한다.

이 편지는 문체가 바울서신과 아주 흡사해서 바울서신을 읽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바울서신을 읽은 듯한 감동을 한다. 아직 교리나 정경이 완성되지 못한 상태인데 저자는 사도바울의 서신에 정통한 실력을 과시한다. 바울서신에 너무 정통한 나머지 서신의 내용에서 바울의 의견인지 디오그네투스 자신의 의견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상태다. 이것은 당시 초대교회가 인정하는 바울의 권위의 영향력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자료다.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는 전체적으로 2세기 변증서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문체나 논리 구조는 상당히 발전된 모습을 보이는 작품이다. 짧은 소책자에 불과하지만 탁월한 기독교 변증서다. 아울러 이 서신은 당시 신앙인들에 의해서 수용되었던 탁월하고 고차원적인 도덕적 삶을 논하고 있다. 기독교 교인의 삶이 고차원적으로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서신은 격동기를 지나는 기독교가 자리 잡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며 2세기 교회의 상황을 전한다. 죄의 전가 문제 등은 아직 모호하고 미성숙한 부분이 있지만 신론이나 기독교론에서는 상당히 성숙한 단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무서운 핍박이 있었던 혼란한 시기이지만 참신앙과 바른 삶을 지향했던 당시 교회와 성도의 성숙을 엿볼 수 있는 자료다.

2024 축복가득 말씀카드. 다시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뉴버전의 디자인은 끈이있는 말씀카드로 주문이 가능합니다. 기존 디자인은 예전과 동일한 끈이 없는 인덱스형으로 제작이 가능하시며 뉴버전의 디자인은 끈형태로 제작이 됩니다. 20종류의 바탕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VENT 20% OFF 선 주문 할인 혜택. 12월8일까지 주문고객을 위한 Special Deal. 150개 \$195 \$156, 300개 \$295 \$236, 500개 \$395 \$316. 전화 및 온라인 주문 환영.

GOOD FRIENDS FOR CHURCH. 주님미디어. A, B, C, D, E, F, G, H, I, J. Various Bible card designs.

기독교일보와 함께하는

축성탄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이사야 30:18)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얼바인온누리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대청Promise 오후 2:00
 수요성령집회 오후 7:30
 목요여성예배 오전 10:30



박신웅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 (Communicate Like Jesus)

웨스트힐장로교회

예배시간 안내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어노인팅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주일~금)
 오전 6:00(토)
 KM 청년부 모임 주일 오후 1:00
 EM 대학부 모임 주일 오후 2:00



오명찬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오레곤 벨엘장로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 1부 예배 오전 8:15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45
 청년부예배 주일 오후 2:00
 수요온라인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이돈하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18391 SW Blanton St. Beaverton, OR 97078
 T. (503) 649-3990



토기장이교회

예배시간 안내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30
 영어 예배 오전 10:00
 유초등 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임경남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Potter's Community Church
 12440 Firestone Blvd. Norwalk, CA 90650
 T.(714)234-5338 / www.potterscc.com
 E-mail : info@Potterscc.com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예배시간 안내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남성수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이 땅의 참 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할 비전입니다.

코너스톤교회

예배시간 안내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이중용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www.cornerstonetv.com

진유철 칼럼

함께 가는 것이 믿음의 성숙이다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아프리카 속담에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혼자서 하면 내 맘대로 빠리는 하지만 더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지치고, 위기가 다가올 때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면 좋은 모델이나 멘토가 생겨 발전하고, 함께 마음을 나눌 동역자도 생겨서 훨씬 쉽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마귀를 이기는 더 위대한 능력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참 믿음으로의 성숙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한 역사를 위해 야곱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시키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의 개인적인 체험과 변화에서 출애굽이라는 공동체의 신앙 체험과 변화로 발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출애굽의 광야에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도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이며 우주적입니다. 십계명의 내용을 보아도, 서로 공격하며, 서로 해치지 않으며, 남의 아내나 남편을 범하지 않으며,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않으며,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등, 다 공동체 율리입니다. 성령의 첫 열매요 신앙의 본질인 사랑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참 믿음이란 나 혼자서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적 믿음으로 성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편견과 오해로 가득한 시대의 초대교회는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어른과 젊은이, 귀족과 천민 등 서로 다른 사람들이 참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랬기에 말씀의 흥양함을 이루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구원을 길을 물었던 부자 관원 청년에게 부족했던 함께 하는 신앙

반대로 예수님께 나와 구원의 길을 물었던 '부자관원 청년'은 혼자로는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함께 하는" 신앙에 실패하므로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키며 열심히 살았고, 사

업도 성공하여 부자였고, 출세도 일찍 해서 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눅18:22)고 말씀하시니 다른 사람들 섬기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신앙에는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듣고 심히 근심하며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크리스천들도 혼자서는 잘 믿는 것 같은데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 약점 아닙니까? 주님께 헌신할 각오는 하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할 각오는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의 사람들이 모이면, 오히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미움과 시기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불행한 현실입니다. 'Not I But Christ'의 참 믿음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성숙을 이루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강준민 칼럼

나를 아프게 한 것들에 대한 감사



강 준 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감사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감사는 눈뜸입니다. 감사하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깨달음은 열림입니다. 깨닫게 되면 눈이 열립니다. 과거가 새롭게 열립니다. 인생을 보는 시각이 새롭게 열립니다. 감사는 깨달음을 낳습니다. 물론 감사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기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감사하면 우리 눈이 밝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감사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시야를 갖게 되고, 깊은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아픈 과거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한계 때문에 모든 사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우리 삶이 무르익게 되면 과거의 고통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점점 깨닫

게 됩니다. 분회되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나의 과거는 깊은 어둠으로, 알 수 없는 수수께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떨어진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감사를 통해 우리의 어두운 과거는 밝아집니다. 감사를 통해 수수께끼가 풀리게 됩니다. 아픈 과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감사절을 지내면서 저를 아프게 한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상처, 시련, 역경, 고난, 고통, 상실, 갈등, 유산(miscarriage), 이별, 질병, 배신, 거절, 실패, 실연, 실직, 버림받음, 그리고 나이 듦의 경험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응만 잘할 수 있다면 우리를 아프게 한 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를 아프게 한 것들 중에 제게 도움이 된 몇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저를 아프게 한 열등감 때문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저의 열등감이 저를 분발하게 했습니다. 보통 8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데, 저는 생일이 빨라 7살에 입학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다른 친구들보다 키가 작았습니다. 어릴 적에 저는 남작코에 대한 신체적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또한 집이 가난했습니다. 유치원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대학에 갈 수 없는 가정 형편 때문에 상업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저는 학력에 대한 열등감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열등감이 저를 평생 학습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

해 더욱 열심히 공부했고, 하나님이 제 안에 담아 주신 잠재력을 성실하게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저를 아프게 한 연약함 때문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날마다 연약함과 씨름하며 살아왔습니다. 저혈압에, 늘 추위를 탐니다. 여름에도 내복을 입고 살 때가 많습니다. 최근에 체중이 조금 늘었습니다. 제겐 기적 같은 경험입니다. 연약함은 육체의 가치처럼 저를 찌르곤 했습니다. 건강한 분들이 부러웠습니다. 저는 연약함 때문에 여행을 즐기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는 일이 적지는 않았지만, 비행기를 타는 것이 제게 큰 즐거움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비행기 안이 추운 까닭입니다. 하지만 연약함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연약함 때문에 많은 분의 중보기도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연약함 때문에 훌륭한 동역자들을 만났습니다. 연약함 때문에 늘 하나님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연약함을 드러내는 글쓰는 은사를 주셔서 글을 통해 많은 분들을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저를 아프게 한 상처 때문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울과 답답이 섞인 기질을 타고 태어났습니다. 때로 용기가 있고 강하게 보이지만 마음이 여린 사람입니다. 쉽게 낙담하고, 좌절하고, 침체하고, 우울한 감정을 느낍니다. 저는 목회 여정에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거절과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쫓겨나듯이 떠나

야 했습니다. 큰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은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저를 미워하고, 저를 괴롭힌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그 상처들이 저를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을 이해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상처를 보듬고, 상처와 화해하면서, 상처를 진주로 만드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상처가 상처를 치유하듯이 저의 상처로 많은 분들을 치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넷째, 저를 아프게 한 상실과 이별 때문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민 목회자가 자주 경험하는 것은 이별의 아픔입니다. 소중한 것을 상실하고, 신뢰했던 사람들과 이별하는 것은 큰 아픔입니다. 저는 이민 목회를 하면서 많은 이별을 경험했습니다. 신뢰했던 사람들이 떠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실과 이별이 모두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상실은 어떤 면에서 비움입니다. 비움이 있음으로 채움을 경험했습니다. 이별 때문에 새로운 만남을 경험했습니다. 이별 때문에 낯선 만남을 경험했습니다. 낯선 만남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한 것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아프게 한 것 때문에 우리가 더욱 잘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한 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아프게 한 것들 속에 하나님의 감추인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을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2023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세례 회교의 교수진,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실용적인 사역 대비, 오프라인 수업, 미국 비자 (I-20) 발급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ABHE, 정회원, ATS, 동회원, 기독교대학교, 목회학박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인수 후 미국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716280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 Gardenia, CA 90247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인재로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속 목사고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 (626) 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s.org
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aarahelio@gmail.com
전화 1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MATS 선교학 석사, M.Div 목회학석사, Th.M 신학석사,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 (626) 653 9547 EXT.#112/admin.kor@itsia.edu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70% Tax Benefit

**2023년
대박**



**100%
Made in
USA**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56% ~ 70%

연방 ITC : 30% 이상
감가상각: 최대 80% 적용
(2023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Solar?

(왜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는가?)

- ✓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설치 가능
- ✓ 최고 성능의 패널 사용
- ✓ Zero Down Payment (PPA)
- ✓ 전기료 50~90% 절감
- ✓ EV Car 사용자 Outlet Free



SCAN ME



Lic#854389

*** 전기세 50~90% 절감 ***

Why BTS Solar?

(왜 BTS 솔라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

- ✓ 전기세 ~~30~50%~~ **50~90% 절감효과**
- ✓ **Zero Down Payment** (PPA의 경우)
- ✓ **최고 성능의 안정적인 패널**
- ✓ 모든 제품군 **최장기간 Warranty**
- ✓ 남가주 전 지역 최단기간 설치

• 태양광 설치 효과

태양광 설치 시 얼마나 많은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지는 첫째, 얼마나 많은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지, 둘째, 패널을 설치할 지붕의 방향과 각도가 태양광을 받기에 얼마나 적절한지 등에 달려 있습니다. 드론을 통해 현장 실사하듯 에너지 효율 체크합니다.

• 저렴한 맞춤형 파이낸스

별도의 담보도 필요없이 크레딧으로만 설치되며 가장 저렴한 Payment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설치 후 1년 동안은 100% 태양광 설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1년 후부터 Payment가 시작됩니다. Payment가 시작되어도 현재 전기료의 70~80%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안정적, 효율적 제품으로 신속 정확한 시공

한국인 팀장이 주축이 되어 고객과 소통하며, 최고의 설치 노하우로 미국 시장에서 가장 인정받고 있는 효율적인 제품만을 선별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시공합니다.

www.btssolardesign.com

TALK BTSSolar

LA: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213.500.8000

OC: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714.702.0151

빠른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세요.

1. 문의 전전기세 고지서를 준비해주세요.
2. 전기세 고지서사진을 찍어서 Text Message 혹은 카톡주세요.
3. 메시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마이 데몬> (上)

SBS 드라마 <마이 데몬>: 마귀에 대한 한국식 묘사의 가벼움

마귀를 구원자로, 과감한 개념 역전 기독교적 요소, 피상적·가볍게 다뤄 죄성과 욕망 고찰 노력 거의 안 보여 벌써 시청률 급감 이유, 깊이 없어서

◆일반 대중문화 속 마귀: 마귀에게 영혼을 판 이들이 등장하는 영화, 드라마의 특징

11월 24일부터 방영 중인, 송강(정구원 역)·김유정(도도희 역) 주연 SBS 금토 드라마 <마이 데몬>은 이 땅에서 암약하는 마귀와 그의 유혹에 넘어간 자들 사이의 이야기를 중심 서사로 삼는다. 마귀에게 영혼을 판 이들의 줄거리가 이어지지만 진지하거나 무거운 느낌은 잘 느껴지지 않는다. 드라마의 전체 분위기는 로맨틱 코미디에 가깝다.

마귀와 계약해 현세에서 큰 이익과 쾌락을 얻는 대신, 영혼이 파멸을 맞는다는 줄거리는 근대로부터 여러 작품에서 목격할 수 있다. 이는 중세 가톨릭 교리와 유럽 혹은 중동 각 지역 민간신앙, 미신, 민담, 설화 등이 합쳐진 데서 유래된 것이다.

근대 후기 괴테의 희곡 <파우스트>(1808)와 폰 베버의 <마탄의 사수>(1821) 등에 의해 확고한 서사의 구조를 갖추었다. 이때 확립된 서사 구조는 이후 소설, 영화, 드라마 등에서 여러 차례 변형돼 활용됐다.

별히 독창적이라 할 만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흥행에 유리한 설정과 서사 요소만 족집게 식으로 골라내 혼합했기 때문에, 실상 진부하기 그지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드라마 <루시퍼>의 핵심 설정(남자 주인공이자 마귀인 정구원의 능력이 여주인공 도도희에게만 통하지 않고, 이로 말미암아 두 사람이 끊기 힘든 관계로 얽힘)을 가져와 극을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표절작에서 느낄 수 있는 별로 유쾌하지 않은 기시감을 피할 수 없다.

다만 <마이 데몬>이 <데블스 애드버킷>이나 <콘스탄틴>, <루시퍼> 등과 다른 점은 드라마 설정 및 서사 전반에 한국 여성들의 욕망이 집약적으로 반영돼 있다는 점이다.

진부하기 짝이 없는 클리셰이긴 하지만, 작품 여자 주인공 도도희(김유정 분)는 재벌가의 일원이면서 사업을 크게 성장시킨 능력 있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며, 남자 주인공 정구원(송강 분)의 마음을 흔들 정도의 여성적 매력도 갖추고 있다. 그러면서 악의를 가진 주변인들의 음해와 공격에도 쉽게 굴하지 않는 강인함도 갖고 있다. 그야말로 요즘 한국 여성들이 갖추고자 하는 조건을 모두 갖춘 인물이다.

게다가 이 완벽한 조건의 여주인공과 함께 하는 남자 주인공 역시 곱상함과 강인함, 도



마귀, 그리고 그 마귀에게 영혼을 판 이들의 이야기를 선보이는 드라마, <마이 데몬>.

릭터를 등장시켜 시청자의 허영 어린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방식은 이미 20년 넘게 지속된 한국 드라마의 진부한 서사 공식으로 특별히 새롭다 할 만한 것은 없다.

다만 <마이 데몬>은 이런 서사 공식을 충족시키기 위해 마귀를 비롯해 여러 기독교 형상과 개념들을 차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특히 차용한 기독교 개념들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비틀고 뒤섞는 데 있어 상당한 과감성을 보이고 있다. 앞서 언급했던 마귀와 관련된 미국 영화나 드라마들 대부분은 성경적 개념을 차용하면서, 그 기본 의미를 과도하게 비틀지 않는다. 마귀의 성품은 기본적으로 악하게 그려지며, 마귀와 함께하는 이의 삶에 참된 구원이 존재하지 않고 음습함이 가득한 것으로 묘사된다.

반면 <마이 데몬>에 등장하는 마귀 정구원에게서는 특별히 악이나 음습함이나 위험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정구원이 계약으로 지옥에 보내는 이들은 원래 말할 만한 악인들 뿐이다. 속으로는 선하지만 겉으로는 '쿨하게' 악한 캐릭터일 뿐이다.

게다가 정구원은 재벌가 암투 속에서 무고하게 살해될 위기에 처한 여자 주인공 도도희를 보호하고 살려주는 역할을 지속하기 때문에, <마이 데몬>이라는 작품 속에서는 분명하게 선역으로 분류된다. 이는 이 캐릭터 이름이 '정구원'이라는 점에서도 분명하게 확인된다. 이 캐릭터의 원래 정체는 마귀지만, 여자 주인공 도도희 편에서는(그리고 도도희에게 감정입하는 여성 시청자들 편에서는) 삶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구원'으로 인식된다.

마귀를 구원자로 둔갑시키는 이런 과감한 개념 역전은 미국의 영화·드라마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굳이 설정의 유사성에 기대어 비슷한 작품을 찾아보자면 <트루 블러드> 시리즈를 지목할 수 있겠지만, 이 작품은 남자 주인공이 마귀가 아니라 뱀파이어, 그것도 굉장히 억울하게 뱀파이어가 된 선량한 인간이기 때문에 <마이 데몬>과

는 실제적인 캐릭터 설정과 묘사 방향이 크게 다르다. 미국도 세속화로 인해 무종교 인구가 급증하고 교회의 문화적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고 있지만, 워낙 문화 자체가 오랫동안 기독교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형성·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대중문화 콘텐츠라도 기독교의 핵심 요소나 개념을 과도하게 비틀면 해당 콘텐츠 소비자에게 문화적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사탄주의를 표방하는 메탈 음악 등이 미국 음악 시장에서 잠시 인기를 얻기는 하지만 그 인기가 오래가지 못하고 마이너 영역에 머무르는 것도 그에 대한 원초적인 문화적 반감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전통적인 정신문화 유산이 주로 유교, 불교, 도교 등에 기원을 두고 있는 데다, 기독교 선교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기에 대중문화 콘텐츠 소비자들이 기독교적 요소나 개념을 왜곡하는 행태에 대해 원초적인 반감을 잘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마이 데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기독교적 삶과 신앙, 성경적 개념에 대한 왜곡이 비교적 자유롭다. 특히 최근 한국교회의 문화적 영향력과 역량이 크게 축소되는 상황에서 이런 경향은 갈수록 더 분명해지고 있다. <마이 데몬>이 구원이나 마귀 등 기독교적 요소를 다루는 방식은 지극히 피상적이고 가볍다. 미국의 마귀 관련 영화나 드라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간의 죄성과 욕망에 대한 고찰 노력은 거의 보이지 않고, 여성 시청자들의 허영 어린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캐릭터 구축에만 주력할 뿐이다.

한편으로는 재벌의 삶을 주로 조명해 드라마 분위기를 화려하고 세련된 것처럼 치장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말초적이고 천박한 욕망을 일깨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드라마가 아직 연재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회차가 진행될수록 시청률이 급감하는 데는 이렇게 사교의 깊이가 없다는 점이 하나의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계속> 박욱주 박사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마이 데몬>의 마귀 정구원(송강 분).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및 동남아 여성들의 취향에 가장 부합하는 외모를 갖춘 캐릭터로 등장한다.

가까운 예로는 영화 <데블스 애드버킷>(1997), <콘스탄틴>(2005), 드라마 <루시퍼>(2016-2021) 등을 지목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마이 데몬>이 마귀를 직접 거론하고 등장시킨 첫 드라마라고 볼 수 있다.

과거 국내 드라마에서 도깨비나 귀신은 여러 차례 등장한 바 있지만, 마귀가 직접 등장해 인간을 홀리고 계약을 성사시키는 작품은 처음일 것이다.

그렇다 해서 이 작품의 서사나 설정에 특

도함과 상냥함, 허당기와 능력을 모두 갖춘 이상적인 모습으로 등장한다. <마이 데몬>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이런 식으로 묘사되는 이유는 당연하게도 해당 드라마의 주 소비층을 철저히 한국(혹은 동아시아 및 동남아) 젊은 여성 시청자로 타겟팅했기 때문이다.

◆한국 대중문화 속 마귀: 한국식으로 의미를 비틀어버린 기독교적 요소와 개념들 재벌가의 당당하고 자유로운 미남 미녀 캐

CHRISTIAN BUSINESS 크리스천 비즈니스

aga MEDICARE OPTION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신비의 침술, 놀라운 속담

Youtube에서 **김용석 원장**으로 검색하시면 많은 치료사례를 보실수 있습니다.

김용석 한의원 구당 김남수 선생님의 무극 보양탕을 체험해 보십시오.
LA 323.733.8814 OC 714.522.8818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media.com
junimmedia@gmail.com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바초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영미의 정성이 한 가득... 미리 주문해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찜닭, 오방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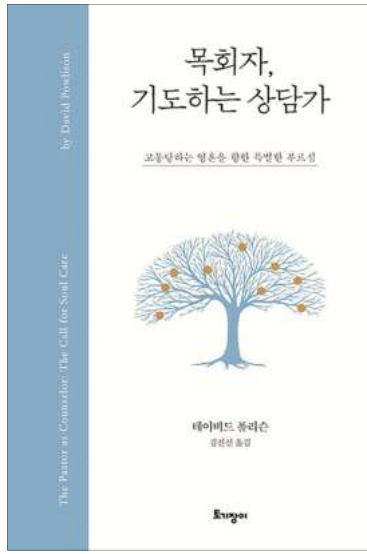
슬팍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213.674.7476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목회자의 상담,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모든 목회자는 상담가여야 한다



담학을 가르친 교수이자 성경 상담학 창시자로 알려진 데이 아담스에 이어서 관련 학문을 더 정교하고 조직적으로 확립한 사람으로 손꼽힌다.

히스 램버트는 <성경적 상담의 핵심 개념>이란 책에서 이에 관한 자세한 배경과 개선점을 분석했다(국제제자훈련원, 2015). 차이점이 분명 있지만, 큰 관점에서 보면 아담스나 폴리슨 모두 성경을 권위 있는 상담 도구로 사용하여 문제가 있는 내담자를 돕는다. 그리고 이는 일반 상담(정신, 심리 등)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신학교육을 마친 후 귀국해 보니, 한국은 이미 일반 상담이 교회 상담을 잠식한 상태였다. 성경은 오직 영적 영역 혹은 종교적 영역만 다룰 권위를 갖고, 나머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일어난 문제는 세상이 높이 평가하고 인정하는 '마음 전문가'에게 가져갔다.

이런 현상은 비단 교회 밖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안타깝게도 일반 상담가들이 전문가로서 권위를 갖고 대중이 그 음성을 청종하는 형국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오늘날 목회자는 비전문가로서 상담할 권한이 지극히 제한되고 또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도 찾기 힘들다(종교적인 문제를 제외하고).

성경 상담학이 시작된 초창기엔 일반 상담과 적을 지고 치열하게 싸웠다. 데이비드 폴리슨이 상담학을 개선할 때 보다 유연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변했지만, 결과적으로 비슷한 성격을 가졌다. 성경 상담학은 일반 상담 이론이 제공할 수 없는 참된 변화의 동력을 제공한다고 믿는다.

그 근거는 무엇인가? <목회자, 기도하는 상담가>를 통해 데이비드 폴리슨이 대답한다. 이 책은 매우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1장 '상담이란 무엇인가?'를 통해 일반 상담과 성경 상담의 유사성을 논한다. 그리고 2장 '목회 상담의 독특성'에서 성경 상담이 가지고 있는 특징, 다시 말해 이점을 설명한다. 저자 폴리슨은 참으로 합리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가진 사람이다. 아담스는 심리 상담을 상담으로 보지 않고,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는 행위로 취급하며 맹렬한 비판을 쏟아부었음에도 모른다(지극히 개인적인 상상이).

하지만 폴리슨은 심리 치료적 개념으로서 상담을 무조건 비판하지는 않는다. 그 또한 사람을 문제로 부터 구원하려는 사랑의 섬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자는 목회자가 하는 상담은 일반 상담과 확연히 다르다고 분명히 말한다. 목회자는 소수 환자를 돌보는 상담가가 아니라, 모든 성도를 돌아볼 책임이 주어진 상담가이다. 또 목회자는 일반 상담이 무시하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뜻, 사랑을 철저히 부정하면서 상담할 수 없다.

일반 상담은 윤리적 지시나 도덕적 권면을 철저히 배제하고 내담자가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돕기만 해야 하는데, 목회자는 그렇게 외부인처럼 관망하는 태도로 상담에 임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목회자는 자신 또한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며 기묘자와 모사이신(원더풀 카운셀러)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해야 한다. 이것이 폴리슨이 재정립한 목회자 관점의 상담이다. 그러면 목회자는 어떻게 영혼을 돌보아야 하는가? 일반 상담가는 자신이 터득한 상담 이론과 그 배후에 있는 사상에 권위를 둔다. 여러 실험이나 통계를 이용하여 나름대로 과학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목회자는 자신의 지혜를 맹신할 수 없다. 오히려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목회자의 설득력이나 말주변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에게서 온다. 성령님은 상담가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말씀을 통해 주신다.

말씀을 바르게 알고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지혜를 얻어 내담자의 상황에 맞도록 설명해 줄 때, 성령께서는 들음을 통한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시고 그의 삶을 변화시키신다.

목회자는 또한 지속적으로 성도를 살피고, 중요한 삶의 이벤트 중 상담 기회를 얻는다. 연약하거나 강한 성도, 부유하거나 가난한 성도 모두 목회자의 상담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고, 관계가 잘 형성되어 서로 잘 아는 내담자로부터 이미 신뢰를 얻은 상태에서 상담을 시작할 수 있다. 목회자 혼자 아니라 공동체가 지체를 돌보고 기도할 수 있으며, 말뿐이 아닌 삶으로 내담자를 만날 수 있다. 목



©픽사베이

회자는 살아있고 능력 있는 상담 메시지,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다. 또 목회자는 자신을 비롯하여 내담자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여 아들의 형상을 닮기까지 신실하게 삶을 빚어가신다고 약속하신 분을 신뢰하여 상담을 진행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성경은 충분한 능력을 제공한다(딤후 3:16-17). 이를 믿는다면 폴리슨이 말하는 상담의

직무를 다하도록 하자.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권하는 자로 세우셨다. 특히 하나님은 목회자에게 당신의 양을 맡기셨다. 그분은 능력과 지혜를 주지 않으시고 일을 맡기지 않으신다. 그러니 목회자여, 기도하자. 우리의 상담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상담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 상담이 배척받는 이 시대에 성실하게 그분이 보내주신 자들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목회자, 기도하는 상담가
데이비드 폴리슨 | 김진선 역 |

토기장이 | 88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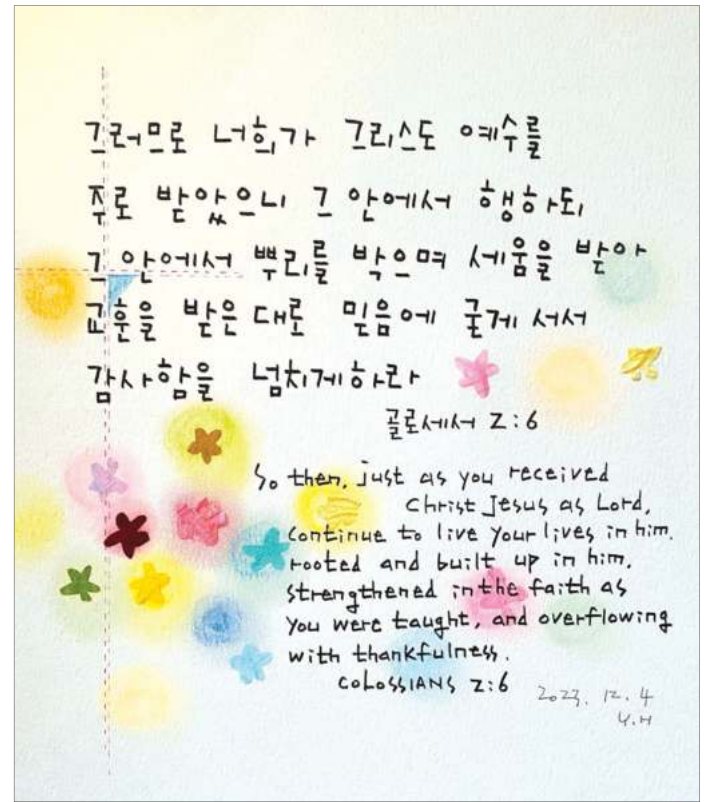
8,000원

“목양 사역은 예술 중의 예술이다”
기도하며 영혼을 돌보는 특별한 소명에 관한 책
성경적 상담가 ‘데이비드 폴리슨’이 말하는 상담가로서 목회자의 부르심

이 책은 목회자의 상담이 얼마나 특별한지, 세속적 상담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어떻게 아픈 영혼을 돌볼 수 있는지 알려 준다. 짧지만 강력한 이 메시지는 기도하며 상담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목회자에게 든든한 이정표가 되어 줄 것이다.

미국 마스터스 신학대학원에서 성경 상담학을 배울 때, 데이비드 폴리슨은 주요한 참고 도서 저자이자 상담학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교사로 받아들여졌다. 실제로 그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상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낙원

최고의 맛과 품위를 드리는

캐더링

각종 모임과 단체행사 파티의 고민!
음식 맛있기로 유명한 낙원캐더링이
책임지겠습니다.

Outcall Wedding Consultation

Custom-made Decoration Service






- 결혼피로연 - 음식배달서비스일체
- 교회 행사 - 창립기념일 및 임직식
- 각종모임, 파티음식 (10인이상 환영, 향우회, 동창회 개업식 축하기념식 크고 작은 모임)

- 생일 돌잔치 회갑연 - 전문 요리사
- 출장 즉석 갈비구이 - 야외 파티시

낙원캐더링의 차별화된
테이블 서비스로
고급 분위기 연출

낙원캐더링

323-466-3737

NAKWON CATERING

4564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04
www.nakwoncateringla.com

美 일리노이 51개 교회, 교단 분열로 UMC 탈퇴

미국 일리노이 주의 51개 교회가 동성애에 대한 입장 차이로 분열 중인 연합감리교회(United Methodist Church, UMC)를 전격 탈퇴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UMC 일리노이 그레이트 리버스 연회(Illinois Great Rivers Conference)는 지난 2일 가상 특별 회의에서 찬성 313표, 반대 47표로 51개 회원 교회의 탈퇴를 승인했다.

프랭크 J. 비어드 일리노이 연회 감독은 투표에 앞서 이 자리를 “엄숙한 날”이라고 부르며, UMC를 떠나는 교회들이 “이 대회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다.

비어드 감독은 “우리는 연합감리교회가 강하다는 사실에 거듭 감사하며 계속 전진할 것”이라며 “오늘 우리 연회의 투표가 이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우리와 이 연회의 삶에 끼친 영향력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서로를 감사하고 기도한다. 비록 오늘의 과제가 무거운 것이지만, 성경과 교회 역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리되거나 어려움을 겪은 첫 번째 공동체가 아님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어드는 UMC의 내부 분열이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깨어짐의 신호”라며 “우리 모두가 이 특별한 이별의 순간에 도달한 데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일리노이 그레이트 리버스 연회는 51개 교회가 탈퇴 절차를 완료했으며, 이들 교회의 결의안이 12월에 표결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연회에 따르면, 51개 교회 중 24개 교회가



미국 연합감리교회(UMC) 일리노이 그레이트 리버스 연회의 본부. ©UMC 일리노이 그레이트 리버스 연회

남부(카스카스키아-캐시강) 구역에 위치해 있으며, 12개는 동부(엠바라스-이로쿼이강) 구역에, 8개는 중부(미시시피-상가몬강) 구역에 있다. 4개 교회는 서부(스폰-라모인강)

구역에 있으며, 3개는 북부(버밀리언-일로니아강) 지역에 속해 있다.

연회는 성명에서 “이 교회들은 10월 2일 까지 교회 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투표로 탈퇴를 승인하는 마감일을 지켰다”면서 “미시급 연금 부채 평가액, 2023년 및 2024년 분납금, 교회가 교회 재산의 소유권을 가지도록 하는 교단 신탁 조항 해제에 따른 10%의 가산금 지불을 위해 총회 의장에게 에스 크로에 자금을 예치했다”고 밝혔다.

UM 뉴스의 5일 집계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약 7500개의 교회가 UMC를 탈퇴했으며, 2023년에만 약 5500개의 교회가 교단을 떠났다. 또한 지난 2일 UMC 플로리다 연회는 가상 특별 회의에서 74개 회원 교회의 탈퇴 투표를 승인했으며, 현재까지 192개 교회가 교단을 떠났다. 김유진 기자

남가주 한인 군목 송년모임으로 활동 재개

군목회 연말회의 및 송년모임 강남회관 12/11(월) 오전 11시

미주한인군목회(회장 최학량 목사, 예비역 중령 군종 28기)는 12월 11일(월), 오전 11시에 강남회관에서 연말 회의 및 송년모임을 갖는다.

최학량 목사는, “팬데믹 이전에 활발하게 활동했지만 코로나 등 여러 사정으로 한동안 모이지 못했고 조국의 군선교에도 동참하지 못했다. 그런데 한국의 젊은이 선교가 위기를 맞고 있고, 한국 군선교 현장도 어렵다는 소식에 미주한인군목회 연말회의 및 송년모임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모임을 계획한 이유를 전했다.

금번 모임을 준비하는 군목들은 역전의 용사들이다. 회장 최학량목사는 11사단, 육군대학과 수방사에서 목회하며 젊은 용사는 물론 고급 장교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고 전역 후 도미하여 창조교회를 목회하며 남가주 교협



미주한인군목회 관계자들.

회장을 지내며 왕성하게 활동했다. 조종곤 목사(예비역 소령 군종 35기)는 육군 훈련소 교회 담임, 수도군단 군종참모를 지냈고 전역

후 방배동 은복교회를 목회하던 중 도미해 사우스베이 선교교회를 목회하다 최근 은퇴했고, 이정현 목사(예비역 대위, 군종 36기)는

실비치사랑교회 담임으로 KAPC 개혁장로회 대학 및 신학대학원 총장으로 섬기고 있다.

이들 외에도 미주한인군목회 남가주 회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안신기 목사(군종 46기, 가주 목양교회), 강태광 목사(군종 46기, 월드웨이 USA), 조성호 목사(군종 47기, 미성대 부총장), 오정택 목사(군종 49기, 전 주하나교회 담임), 지성은 목사(군종 49기, 새생명 교회), 채효기 목사(군종 54기, 하신엔다 한인교회), 이석기 목사(군종 55기, 성일교회), 김성규 목사(군종 56기, 주백성교회), 최인승 목사(군종 60기 양무리교회) 등이 사역 현장을 지키고 있고 남가주에 25여명의 예비역 군종 목사들이 활동하고 있고, 전 미주에 300여명의 예비역 군목들이 활동하고 있다.

미주한인군목회에 관한 문의는 행사 준비위원인 강태광 목사(군종 46기, 323-578-7933)에게 하면 된다.

김민선 기자



Hills
BEAUTY CLUB

힐스 미용실

오랜 경험과 화려한 미용경력으로
여러분들의 헤어스타일을 완벽하게
디자인해 드립니다.

신부화장
신부헤어
남성컷
여성컷
뿌리염색
일반펌
셋팅펌
헤어코팅, 매직
염색

▪ Tue ~ Sun: 9:00 am ~ 7:00 pm
▪ Monday : Closed

323-465-7400

217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MERRY
Christmas
& HAPPY
NEW YEAR

한 해 동안 함께 해 주신 고객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각 종 연말 모임은 힐스 미용실에서 더 예쁘게 ~
저희 힐스 미용실에서 책임지겠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메리 크리스마스!**



소중한 분들을 위한 따뜻한 선물

연말연시 건강지킴이 귀생당

정성과 마음을 가득 담은
귀한분들을 위한 건강지킴이 - 귀생당

한 해 동안 귀생당을 사랑해 주신 고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연말연시 귀생당 건강지킴이로 소중한 분들께 따뜻한 사랑의 선물을 전해 보세요!

<p>Special Price</p>  <p>귀생당 당간신구</p> <p>혈당을 조절하고 면역력 기능을 강화해서 당뇨와 합병증으로부터 해방 되십시오!</p>	<p>Special Price</p>  <p>귀생당 후코이단</p> <p>강력한 면역시스템 활성화로 항종양, 항궤양, 항바이러스 등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p>	<p>Special Price</p>  <p>귀생당 아이눈 아이</p> <p>피로한 눈, 노안, 녹내장, 백내장 등 각종 눈질환 개선에 탁월합니다!</p>	<p>Special Price</p>  <p>귀생당 후코이단 드링크</p> <p>후코이단 드링크 한 병당 함량을 5400mg으로 높여 인체에 더 빠르게 흡수되고 효능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p>
<p>Special Price</p>  <p>귀생당 동의비</p> <p>허준의 동의보감의 비방으로 6년근 홍삼과 녹용, 지황등 20여가지 신비의 약초가 한 알에 모두 함유되었습니다.</p>	<p>Special Price</p>  <p>귀생당 홍삼100% 진생프레소</p> <p>오로지 6년근 홍삼만을 진하게 담아 면역력증진, 피로회복, 당뇨개선, 동맥경화, 황산화에 도움을 줍니다.</p>	<p>Special Price</p>  <p>귀생당 홍삼+경옥고 홍력소</p> <p>6년근 홍삼에 경옥고가 더해져 면역력을 키워 떨어진 체력을 회복시키고 골다공증, 기억력을 회복해 줍니다.</p>	<p>Special Price</p>  <p>귀생당 글루코사민</p> <p>천연 콘드로이친의 상어연골과 지느러미로 만들어 고통스럽고 오래가는 각종 관절염에 탁월하고 위장에 부담없는 글루코사민입니다.</p>



www.kiseidousa.com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 213.384.3333 / 800.909.0001